



2012  
Kwanhwa + Singol  
2011  
Kwanhwa + Singol  
2010  
Kwanhwa + Singol  
2009  
Kwanhwa + Singol  
2008  
Kwanhwa + Singol  
2007  
Kwanhwa + Singol  
2006  
Kwanhwa + Singol  
2005  
Kwanhwa + Singol  
2004  
Kwanhwa + Singol  
2003  
Kwanhwa + Singol  
2002  
Kwanhwa + Singol  
2001  
Kwanhwa + Singol  
2000  
Kwanhwa + Singol

문화  
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12 08

2007 09



서울시 자치구 소식



**중랑구**  
‘당신이 중랑의 별!’ 중랑구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 10월 7일과 8일 중랑구의 명소 용마폭포공원에서 개최된다. 중랑 재능 쿵쿠르, 강소천 동요제 등 중랑인이 펼치는 무대와 어린이를 위한 나눔 페스티벌, 상상아트 키즈 존, 중랑서가, 폭포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노원구**  
노원문화재단은 기획전시 <本그리고美: 연우然愚 최충웅 회고전>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노원아트갤러리에서 진행한다. 자연 속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고, 전통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현대 조각을 선도한 최충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서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식물원 전디마당에서 제21회 허준축제가 열린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인물인 허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료건강문화축제다. 허준 콘서트를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가요제와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며, 14일에는 마라톤 대회도 예정돼 있다.

**광진구**  
열여덟 나이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러시아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이고시나가 10월 10일 나루아트센터에서 첫 내한 공연을 연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그리고 쇼팽의 소품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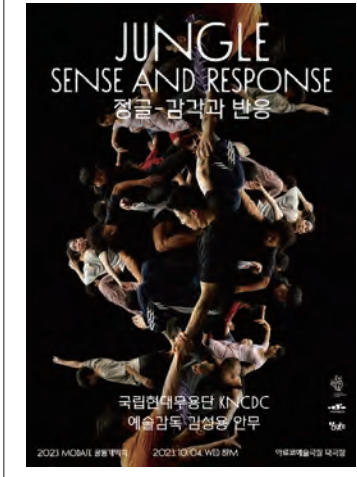


**도봉구**  
도봉동 평화문화진지에서 10월 15일과 22일 일상예술워크숍 <춤추고 노래하는 나, 너, 우리>가 열린다. 음악가·무용가와 함께하는 숲 예술 생태 놀이 프로그램으로, 6~13세 어린이와 보호자 1인으로 구성된 15팀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문화진지 누리집(culturebunker.or.kr)이나 유선(02.3494.1970)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마포구**  
마포에선 공연이 천 원? 마포문화재단은 시민의 공연 관람 문턱을 낮추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마트 신촌점을 비롯해 재단과 제휴를 맺은 마포구 소재 카페와 독립서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컬처존구매권’을 수령한 뒤 공연일 마포아트센터 티켓박스에 제시하면 1천 원에 공연을 볼 수 있다.

공연



**국립현대무용단 <정글-감각과 반응>**  
국립현대무용단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 김성용이 안무한 신작 <정글-감각과 반응>이 국제현대무용제 공동 개막작으로 초연한다. ‘무용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철학을 가진 안무가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온 그가 가장 진실한 표현 도구로 여기를 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개 오디션을 거친 18명 무용수가 출연할 예정. **10월 4일 오후 8시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2.763.5351**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금나래아트홀은 기획 공연 ‘너나시리즈’로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를 선보인다. 두 할머니와 반려동물 삼총사가 밥과 정을 나누며 식구가 되어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진정한 식구가 자리하는 소박한 이야기가 일상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10월 7일 오후 2시와 7시 | 금나래아트홀 070.8831.5347**



**극단 피악 <햄릿, 걷는 인간>**  
극단 피악 대표이자 연출가 나진환이 실존주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 <햄릿>을 각색한 작품이다. 극의 주요 인물인 햄릿·클로디어스·거트루드·오필리아·폴로니어스가 새롭게 해석돼 거대한 음모와 폭력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인간의 존재 유형을 형상화한다. 원작에 없는 선왕과 거트루드의 행복한 일상, 햄릿과 오필리아의 사랑도 추가했다. OTT 드라마 <카지노>에서 열연한 배우 최홍일이 무덤 관리인 1로, <더 글로리>에서 못된 선생으로 출연한 배우 박윤희가 무덤 관리인 2로 특별 출연한다.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 이해람예술극장 02.742.0327**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토리텔링 음악극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표방하며 영화의 요소와 음악, 무용 그래픽 아트 등이 어우러진다. 열한 명의 월드뮤직 아티스트로 구성된 윤주희 소수주 앙상블의 연주를 중심으로 가수 선우정아의 노래와 배우 한예리의 안무와 춤이 함께한다. **10월 7일 오후 7시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02.399.1000**



**뮤지컬 <쇼맨-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사회와 이데올로기 안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삶과 회복을 그린 블랙미디 <쇼맨-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가 11월 12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한다. 극작가 한정석·작곡가 이선영·연출가 박소영의 의기투합으로 완성된 이 작품은 2022년 초연 당시 호평을 받으며 그해 한국뮤지컬어워즈·DIMF 어워즈 등을 수상해 창작뮤지컬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타인의 시선과 주변의 기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단하는 현대사회의 ‘쇼맨’이라면 충분히 공감하며 즐길 작품이다. **11월 12일까지 | 국립정동극장 | 02.751.1500**



**극단 코끼리반보 <괴물 B>**  
연극 <괴물 B>는 노동 현장에서 훼손된 몸 조각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종인 괴물 ‘B’의 이야기를 그린다. 한현주 작·손원정 연출의 작품으로, 2021년 극단 코끼리반보에서 초연했다. 이번 재공연에는 움직임에 강점을 지닌 배우 이상홍, 마임리스트 이두성, 무용가 류정문 등이 대거 합류해 몸의 움직임과 이미지에 집중, 산업재해로 훼손된 몸을 무대 위에 형상화하는 데 애를 썼다. <괴물 B>는 산업재해의 역사와 기억을 몸으로 수용하고, 사고하고, 질문하면서 우리 곁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침묵당한 그들의 목소리를 극장으로 불러낸다.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 02.742.7563**

국립현대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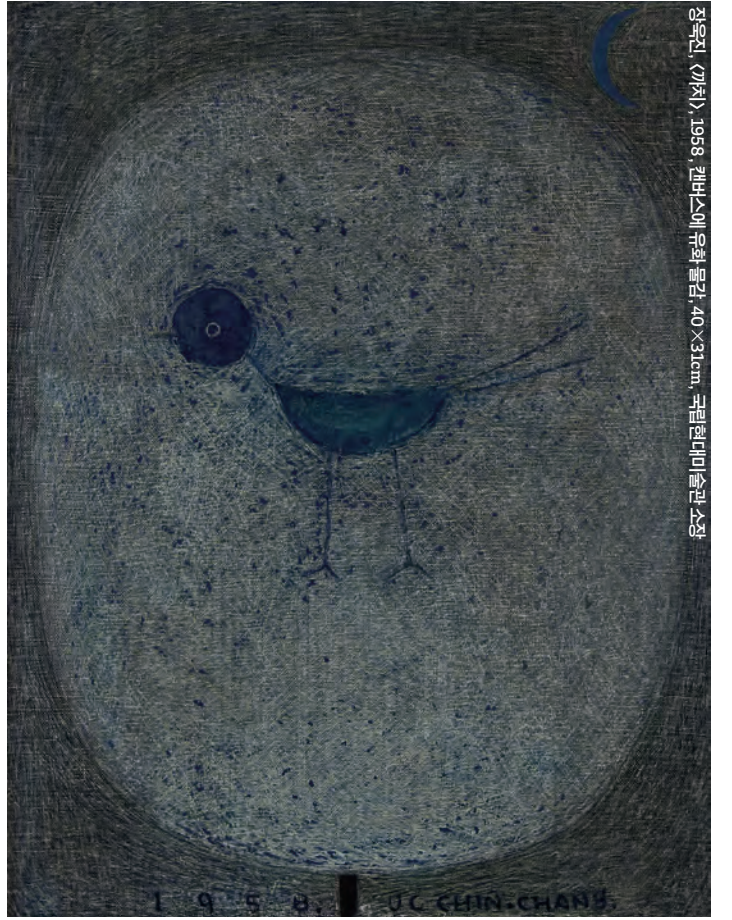


전시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중진·원로 작가의 신작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간 펼쳐온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아크미술관 기획초대전에서 올해 선정한 작가는 노원희다. 작가는 1977년 개인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시작했고, 1980년 '현실과 발언'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회화부터 대형 천 그림, 참여형 공동 작업, 신문 삽화, 아카이브, 그리고 신작까지 아우르며 130여 점의 작품과 자료를 펼쳐 놓는다. '민중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일컬어지지만 사조와 언어로 전부 해석되지 않는, 그간 그려온 예술 실천의 궤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1월 19일까지 | 아크미술관 제1·2전시실 | 02.760.4850**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미디어로 상징되는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는 현대미술 행사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지난 9월 개막했다. 올해 주제는 '이것 역시 지도 THIS TOO, IS A MAP'로, 다양한 예술가와 실천가들이 서구 중심주의 인식론 바깥의 동시대 역사와 지식을 탐구하며 다층적이고 다층적인 지도 그리기를 보여준다. 비엔날레는 역사와 지식을 매핑하는 전 세계 예술가 40명(팀)의 작품 61점을 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시박물관·SeMA벙커·소공 스페이스 등 여섯 개 전시장에 소개하며, 그중 36점의 신작 제작을 지원하고 5점의 커미션 작품을 선보인다.  
**11월 19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외 | 02.2124.8800**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우리가 사랑한 화가 장욱진이 1920년대 학창 시절부터 1990년 작고할 때까지 60여 년간 꾸준히 펼친 미술 활동을 망라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유화·먹그림·매직펜 그림·판화·표지화·삽화·도자기 그림 등 270여 점 작품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전시 제목 '가장 진지한 고백'은 "그림처럼 정확한 내가 없다"는 작가의 말에서 착안했다. 크게 4부로 구성된 전시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청년기(10~20대), 중장년기(30~50대), 노년기(60~70년대)로 재구성해 작가의 주제 의식과 조형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모했는지 보여준다.  
**2024년 2월 12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02.2022.0600**

축제/행사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전국 8개 국악관현악단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만난다. 1964년 국악예술학교 부설 국악관현악단이 창설하며 '국악관현악'이 생겨난 지 60년, 회갑을 앞두고 국악 중흥을 위해 모인 것이다. 이번 축제는 우리 전통음악을 동시대 예술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오늘의 국악관현악'을 들려준다. 포럼과 축하공연으로 구성된 전야제(10일)를 시작으로, KBS국악관현악단(11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12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14일), 대전시립연정국악단(17일), 전주시립국악단(18일), 대구시립국악단(19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20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21일)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번 축제의 포인트는 여러 악단의 연주를 비교해 들어보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지휘자·협연자의 참여로 한층 새로워진 음악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아쟁 명인 김일규, 대금 연주자 이아람, 소리꾼 민은경·김준수, 가객 장명서, 거문고 연주자 박다을 등 국악 연주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기타리스트 김성현 등 양악기 연주자와의 만남도 주목할 만하다.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3 서울국제음악제**  
 '음악을 통한 화합'을 위해 2009년 시작된 서울국제음악제는 매년 가을 축제를 열어 다양한 국가의 음악,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연주자들로 구성된 SIMF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데 주목했고, 올해는 '낭만적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꿈꾸던 브람스의 우아한 선율과 낭만의 끝자락을 잡고 유명하던 시벨리우스, 그리고 류재준의 신작으로 늦가을의 낭만을 한껏 노래할 예정이다. 10월 7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개막 음악회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The Best of Brahms: 실내악>에서는 브람스의 실내악곡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10일에는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핀란드에서 온 편지>가 열려 시벨리우스·린드버그·브람스의 작품을 선보이고, 11일에는 파울로 보르틀라메올리가 지휘하는 SIMF오케스트라의 무대가 펼쳐진다. 12일에는 브람스의 작품 가운데 피아노곡을 중심으로 들려주며, 14일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폐막음악회에서 류재준의 트럼펫 협주곡이 세계 초연될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아쿠프 하우파, 바울리스트 김상진, 첼리스트 김민지, 호른리스트 유우이 황 등 전 세계에서 모인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해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간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Contents			06
Scene	Focus	Associated	Column
<p>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p> <p>02 서울시 자치구 소식</p> <p>03 공연</p> <p>04 전시</p> <p>05 축제/행사</p>	<p>200번째 [문화+서울] 인사드립니다</p> <p>1 활짝 열린 '토론의 광장'</p> <p>5 '매달' 찾아가는 서울시민 문화 활동의 길잡이</p> <p>6 배우 조정석의 자기소개</p> <p>10 "200번째 기념일을 앞둔 네가 자랑스러워"</p> <p>16 여기서 가장 먼저 만나요</p> <p>19 잡지의 쓸모를 다시 생각하다</p> <p>24 대학로 스타 배우 총출동!</p> <p>34 우리가 주목한 발레리나 박세은의 성장</p> <p>47 예인 김성녀, 민중의 마당을 품다</p> <p>51 이달의 특집 #거리예술</p> <p>63 그뻘 그랬지, 역대 담당자에게 듣는 뒷이야기</p> <p>85 2014—2023 연출가 이경성의 나침반</p> <p>88 2014—2021—2023 배우 박상원의 서울, 마이 소울</p> <p>99 2015—2023 연출가 고선웅은 여전히 연극이 재있다</p> <p>108 2016—2023 여전히 다정한 시인 이우성</p> <p>118 2016—2023 아티스트 이자람의 '커다란 세계'</p> <p>124 2017—2023 거슬러 성장하는 무용가 김용걸</p> <p>130 잡지 만드는 일의 기쁨과 슬픔</p> <p>139 2018—2023 소설가 장강명의 '시스템'</p> <p>157 팬데믹, 그 치열한 기록</p> <p>180 진실 혹은 대담, 뜨겁고 냉철하게</p> <p>199 시대와 발맞춘 표지 디자인 변천사</p> <p>200 [문화+서울] 함께 만들어갑니다</p>	<p>38 예술가의 진심 김우욱이 말하는 연극의 생명력</p> <p>42 페이퍼로그 잔잔하고도 확실한 나의 행복 예술교육정책팀 승희조</p> <p>44 문화+후원 예술지원, 무대 너머 디지털 세계로 갤러시아티스트 x 서울문화재단</p> <p>46 인사이드 다양한 경험의 만남, 장애예술 기획전</p> <p>48 인사이드 서울 예술인을 위한 플랫폼,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p> <p>50 예술단체 아카이브 노이오페라코러스 발레에스티피 협동조합</p> <p>52 해외는 지금 우리 시대가 폭력적인 지휘자를 대하는 법</p>	<p>56 삶의 책장을 넘기며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걸리는 시간</p> <p>57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나의 지난날, 우리의 지난날</p> <p>59 동시대적 고전 읽기 다시 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p> <p>60 일상 결의 공예 벽에 걸린 현대 공예</p> <p>62 컨트리뷰터</p>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표지 사진 황필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3년 10월 4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1 활짝 열린 '토론의 광장'

“〈문화+서울〉은 서울의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정책지입니다. 과거 서울의 흔적과 현재 서울의 문화예술 현황을 점검해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ulture+Seoul is a “mook” magazine that deals with policies related to arts and culture of Seoul, and is designed to help authorities initiate “futuristic policies” regarding arts and culture by examining the past and present status of arts and culture of Seoul.” 2006년 7월호(vol.3), 2006년 12월호(vol.4) 이제 막 연습을 마친 듯 울퉁불퉁한 자국이 남은 무용수의 발과 가지런히 벗어놓은 토슈즈 한 켤레. 사진에 나타나진 않지만, 무릎을 세워 모은 다음 두 팔로 안고 있는 여성 무용수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진가의 관점으로 포착한 발레리나 문훈숙의 발이 표지 전면에 담겼다. 탈네오폭 형태의 서울문화재단 CI를 응용해 만든 [문화+서울] 제호 위로 ‘서울의 문화 정책을 생각하는 마당’이라는 문구가 책의 가치를 드러낸다. ‘서울의 문화정책은 있다?’ 특집 주제에

붙은 물음표는 다소 도발적인 인상을 자아내며 얼른 지면을 넘겨보고 싶게 만든다. **“서울문화재단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서울문화정책’을 생각하는 ‘문화+서울’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크지는 서울문화를 사랑하고 창조하는 데 관심 있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운영요원, 각급 자치단체의 문화행정요원, 문화예술관련 학생, 각종 매스컴 관련자들에게 토론의 광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인 본지 편집위원장, 2005년 6월호(vol.1)

가로 22센티미터, 세로 27.5센티미터 판형에 총 116면, 손바닥만 한 크기의 우편엽서까지 포함된 창간호는 2005년 6월 1일, 처음 세상에 나왔다. 반년(6개월) 주기로 발간되는 무크지 형태로 단행본과 잡지의 특성을 고루 갖춘 구성이 돋보인다. 서울의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질 외국인 독자를 위해 목차 전문을 영문으로 병기한 것도 눈에 띈다. 당시 매 호 2,000부 발행했는데, 독특한 것은 정가 5,000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 또한 잡지 [art](월간 [아트인컬처]의 전신)를 발간하던 미술 전문 출판사 미술사랑이 편집디자인을 맡아 진행했다.

특집에서는 ‘창간의 변’에 꼭 맞게 서울 문화정책의 현황과 비전, 국내외 필자가 바라본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의 문화포커스’라는 섹션을 통해 공공극장의 정체성을 주목했고, 연극·미술·무용·문학·국악·음악·예술경영 및 기획자로 부문을 나눠 서울의 문화자원과 문화정책의 방향을 진단했다.

### [문화+서울] 잃어버린 식구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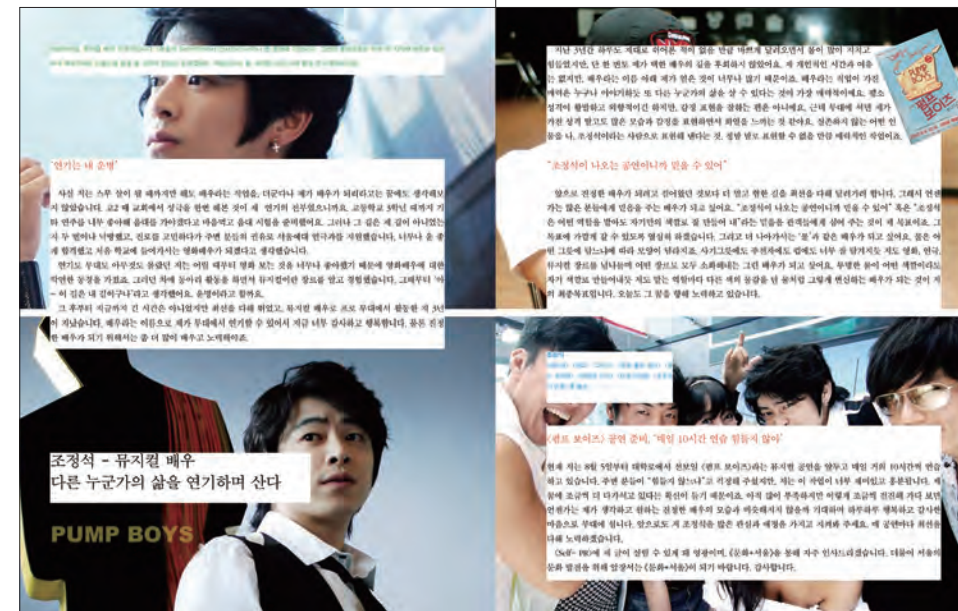
2005년 11월호(vol.2), 2007년 10월호(vol.8), 2009년 4월호(vol.26) 해당 호를 갖고 계시거나 기증해주실 독자를 기다립니다. 02.3290.7124

# 5 ‘매달’ 찾아가는 서울시민 문화 활동의 길잡이

통권 4호 발간 이후 어언 반년, [문화+서울]은 모습을 새단장하고 월간 주기의 ‘문화예술정보지’로 거듭났다.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의 손에 넣기 좋은 소책자 판형에 62면 분량. 무크지에 비해 한결 가벼워진 모양새다.

콘텐츠 구성도 완전히 변화했다. 딱딱한 코너명 대신 친근한 제목으로 채워졌고, 서울 곳곳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대거 지면에 등장했다. [문화+서울]이 주목한 예술단체를 소개하는 ‘현재진행형’, 장르별 예술가와와 ‘인터뷰’, 국내외 문화예술계 트렌드를 포착한 ‘예술의 새로운 지형’, 미술가 혹은 사진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문인의 에세이를 담은 ‘예술가의 서울읽기’, 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의 문화공간’과 ‘문화정보’, ‘시민참여후기’ 등이 2007년 7월호(vol.5)에 실렸다.

2007년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연극센터와 남산창작센터가 개관하며 계획한 문화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기 시작한 때다. “서울 시민은 문화에 목마르다”(2007년 11월호 vol.9 특집)는 표현처럼 재단은 시민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걸음을 부지런히 했다. [문화+서울]은 “예술과 예술인, 예술 현장을 소개하고 서울의 문화 공간과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서울의 문화예술’을 발굴, 조명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재구성한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정보지”로서 “서울시민 문화 활동의 길잡이 역할”(2007년 7월호)을 하고자 했다.



# 6 배우 조정석의 자기소개

2007년 7월호와 8월호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소개하는 특집 ‘예술가 Self PR’을 마련했다. 현장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자유로운 기고와 현장 사진으로 지면을 장식했다. 편집부는 예술가에게

- ❶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 ❷ 예술 활동을 하는 원동력
- ❸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전망
- ❹ 최근 작업
- ❺ 서울문화재단 및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질문했다. 그중 옛되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독자를 반기는, 조정석의 ‘자기소개’를 발췌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조정석입니다. <예술가 Self PR>에서 인사드려 너무나 큰 영광에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해 배우는 입장에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술가라는 말, 제게는 아직 너무 멀고 먼 이름이니까요.

앞으로 진정한 배우가 되려고 걸어왔던 것보다 더 멀고 험한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정석이 나오는 공연이니까 믿을 수 있어” 혹은 “조정석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기만의 색깔로 잘 만들어 내”라는 믿음을 관객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제 목표이죠. 그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과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사기그릇에도 주전자에도 컵에도 너무 잘 담겨지듯 저도 영화, 연극, 뮤지컬 장르를 넘나들며 어떤 장르도 모두 소화해내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투명한 물이 어떤 색깔이라도 자기 색깔로 만들어내듯 저도 맡는 역할마다 다른 색의 물감을 탄 물처럼 그렇게 변신하는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호(vol.6) 다른 누군가의 삶을 연기하며 산다, 조정석-뮤지컬 배우





# 10

## “200번째 기념일을 앞둔 네가 자랑스러워”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걸려온 후배의 전화를 받지 못했어.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선뜻 수화를 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레 마주한 그의 이름을 보자 반가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무슨 일일까. 2년이 지나 일말의 예고도 없이 왜 연락했을까. 서로의 안부조차 물을 사이도 없이 매정하게 응답한 지 몇 분이 흐른 후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

“어느새 200호를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옥이아 금이아 생각한 것도 그렇고, 선배가 떠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애정했는지도 익히 알기 때문에 (원고 집필을) 부탁드려요.”

이제 내년이면 재단이 태어난 지 20주년이 된단다. 남산 자락에서 스물네 명이 모여 첫발 내디딜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스무 살이구나. 성인으로 갓 쓸 때가 됐다는 ‘약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기라는 ‘방년’이라는 말을 이때쯤 쓰지 않나. 열 돌 축하를 건넌 게 얼마 전이었는데, 벌써 그만큼 또 흘렀구나.

20년을 거치면서 나의 손때가 묻은 사업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갔어. 대학로에 있는 부동산을 살살이 뒤져 어렵게 찾은 지하 공간을 개조해 만든 ‘대학로연습실’. 일 년 열두 달 청계천에서 끊이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울거리아티스트’. 판이 벌어지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바쁘다 보니 추억놀이에 빠지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네가 200번째의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누구보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매달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탄생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에 대한 애정을 켜켜이 쌓아왔어. 아마도 밤낮으로 아이템을 위해 고민하는 순간을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겠지.

누가 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오탈자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 애간장 태우던 순간들을 몸소 겪었기 때문일 거야.

물론 200번째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온 네가 자랑스럽다. 2004년 재단이 생기면서 그 이듬해였던 것으로 기억해. 옆 부서의 담당자가 너를 아주 소소한 이유에서 만든 것까지 알고 있어.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탄탄하게 자리잡은 너를 바라볼 때마다 재단과 너는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 아마도 네가 걸어온 길이 재단의 20주년을 밝혀줄 중요한 기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너는 행정문서에 치여 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수많은 사업과는 다르게 너를 대하게 됐어. 글쟁이로서 고민하던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일 거야.

세상이 급변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신<sup>新</sup>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에게도 위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누가 종이로 보나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손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네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 거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해. 자간, 들여쓰기, 화면 배열, 교열 교정 등 모든 것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야. 네가 탄생하는 과정의 산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하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모든 순간을 나는 기억해. 그리고 네가 200번째 기념일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이 순간, 이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친구들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나가기도 했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충무아트센터의 친구들이지. 적어도 이쪽 바닥에서 탄탄함을 자랑했던 녀석들인데 외부의 변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무언가의 대체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인터넷이 종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그렇게 견뎌온 지난 몇 년간의 고비가 있었기에

200번째 기념일은 나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네.

외부에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물었어.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어디죠?” 어디로 가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네가 매달 인쇄소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배달되는 곳. 따끈따끈한 책자가 건네지는 첫 번째 목적지. 그곳은 용두동 청사의 가장 꼭대기인 대표이사실이 아닐까. 대표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늘 네 얼굴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 대표이사실로 들어가는 왼편에는 네가 태어난 2005년 7월부터 가장 최근 호까지 각양각색의 표지가 벽면을 채우고 있지. 아마도 네 200번째 기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 20년 가까이 버텨온

시간만큼이나 200개의 표지만 봐도 네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야. 다양한 배경의 색감이 전해주는 외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네가 걸어온 20여 년 때문에 이곳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200번째 기념일을 앞둔 네가 자랑스러워. 그동안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 순간들을 견뎌줘서 대견해. 그리고 10년 넘는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나에게 다시 찾아와줘서 고마워. ‘200’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앞으로도 오랫동안 멈추지 않길 기도할게.”**

**이규승은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현 홍보마케팅팀)에서 10년 4개월간 근무하며 [문화+서울] 발간을 위한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후 축제교육실을 거쳐 예술교육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16

## 여기서 가장 먼저 만나요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돼 별도의 구독 요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독자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 35곳, 구청·문화원 등 60곳, 수도권 도서관 225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 용두동 본관과 예술공간 15곳에서 따끈따끈한 신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요 배포처 |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민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민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시민형 신당창작이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 19 잡지의 쓸모를 다시 생각하다

얼마 전 일이다. 쓰고 있는 논문의 자료를 찾는 중이었다.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차범석<sup>1924-2006</sup> 선생이 1965년에 쓴 '다시 연극의 대중화를'이라는 글의 전문을 읽고 싶었다. 이 글은 차범석 선생과 극작가·연출가로서 근대 한국 연극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이진순<sup>1916-1984</sup> 선생이 1965년 창간한 계간지 『연극』 창간호에 실려 있었다. 아코예술기록원에 있겠다 싶어 검색해봤는데, 나오지를 않는다. 『차범석 전집』 시리즈 중에서 그의 논문과 평론만을 모아둔 12권의 목차를 뒤져도 해당 글은 없었다.

어쩌나 하다가 대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연극』의 창간호를 찾아내 차범석 선생의 귀중한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세로쓰기에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60년이나 된 이 오래된 글을 읽으며 연극의 상업성과 예술성의 반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구나 헛웃음이 절로 났다. 특히 차범석 선생은 연극이란 "누구나 보아서 이해가 가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식모족이나 지게꾼으로 극장 안을 메꾸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치들을 시종일관 꾸짖는데, 글이 어쩌나 생생하던지 그의 목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듯했다.

계간지 『연극』은 광복 이후 처음 등장한 연극 전문지이나 아쉽게도 2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했다. 비평지와 학술지의 역할을 모두 담은 '최초의 연극 전문지'라는 창간 의도는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버렸지만, 연극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사람의 비평적 관점을 더해 담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후 발행되는 여러 공연 전문지 발간을 이끈 이슬받이 역할을 했다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

이 경험은 공연 현장의 까마득한 후배로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선배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그가 남긴 생각과 고민을 읽어 참고점을 찾기 위해 종이를 뒤적거리면서 '아, 잡지의 쓸모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므로 1994년 창간된 대중문화 계간지 『리뷰』의 창간사가 짚듯이 잡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실로 이렇게 기억될 만한 일인 것이다. "정기 간행물의 탄생은, 한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어떤 그룹의 지적 광장임을 자임하는 명백히 문화사적 사건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도 잡지의 시대가 있었다. 1990년대에는 무려 1천여 종의 정기 간행물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절 발간되던 문학·사회·문화 비평지 몇몇은 지금도 명맥을 이으며 시대의 담론을 후대에 전하고 있지만, 계간지 『연극』의 운명처럼 한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지 못하고 생을

다한 잡지도 수두룩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잡지의 종말'이라고 선불리 부를 수 없는 것이, 지면을 채운 글만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더욱 짧게! 더욱 자극적으로!'를 지상 과제로 외치는 숏폼 영상의 시간은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바뀌고, 책 한 권을 완독하는 즐거움을 출퇴근길에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 속 단문으로 대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잡지의 쓸모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본다. 잡지를 통해 1990년대 지성사를 추적하는 『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를 쓴 윤여일의 말을 빌려보자면, 잡지의 '잡'을 주제, 입장, 형식의 다양성이라고 풀이할 때, 잡지는 현실의 소재에서 건져낸 사고의 과제들을 사회에 발신해냄으로써 여러 주제를 다른 어조로, 때로는 상이한 입장이 함께 개진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공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시대마다 명명한 당시 잡지들을 읽으며 '근기원의 탐구를 통한 현재의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대의 지성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잡지에는 공식성과 통시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니, 읽는 이의 목적과 능동성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담론의 의미를 추적하거나, 혹은 한 시대에서 뜨겁게 논쟁했던 담론의 중요성을 더욱 심도 있게 발견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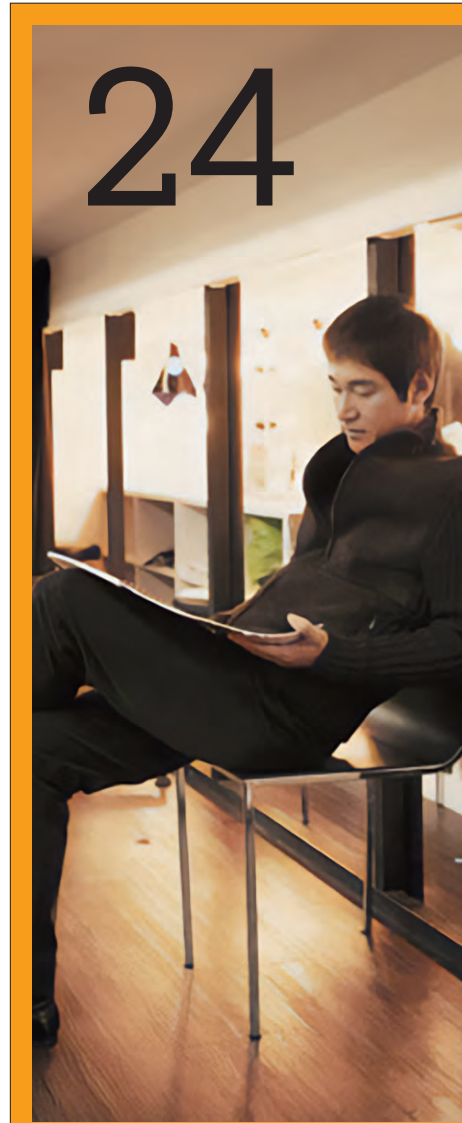
공연예술 현장 역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지자체별로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재단이 생겨났고, 마치 그러한 시대의 소명이듯 잡지도 덩달아 창간됐다. **[문화+서울] 역시 이 시기인 2005년에 창간했고, 많은 잡지가 부침을 거듭하며 소멸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중에도 19년**

**차에 접어들어 200호를 발간했다.** 그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기관과 재단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은 그 목적에 맞게 다루는 주제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 현장을 추적할 근거를 찾기에는 충분하다. 다른 매체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예술인과 공연, 여기에 더해 예술과 공간으로 확장하는 주제를 시도한 [문화+서울]은 그 기록적 가치가 더욱 크다. 최근에는 잡지의 존재 여부를 넘어 그 형태에 대한 고민도 더해지면서 기관별로 웹진과 종이 잡지 형태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잡지의 형태가 어떻게 독자의 손에 닿든, 결국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잡지에 남겨진 글들은 언제나 쉽게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성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화+서울]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차별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방향 역시 2007년 7월호(vol.5) [문화+서울] 마지막 장에 남겨진 박범신 작가이자 당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쓴 '도덕의 교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이 우리가 건설한 도시를 '괴물'로 방치하지 않고 인간주의적 숨은 꿈까지 아름답게 드러내고 익히는 문화의 사수자이자 전도사 역할을 하기 바란다."

**최여정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채 1기로 인사에 공연장으로 출퇴근을 시작했다. 대학로 연극열전을 거쳐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에서 한국 창작 연극을 알리는 일을 했다. 현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화 현장을 대중에게 알리는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 '이별 때, 연극', '세익스피어처럼 걸었다, 등이 있다.**



# 24

## 대학로 스타 배우 총출동!

"김갑수, 장영남, 정보석, 조재현, 박철민, 오달수, 유오성, 황정민... 대학로 출신 스타 배우들과 함께하는 대학로 희망연극 프로젝트! 경제 한파로 유난히 추운 올겨울, 서울 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대학로가 연극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2009년 2월호 커버스토리에는 대학로 대표 배우 네 사람이 표지를 장식한 이유가 이렇게 적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다가오는 신년조차 분위기가 무거웠던 때, 서울문화재단은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 대학로를 중심으로 서울연극센터,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대학로문화활성화위원회와 손잡고 한마음으로 '대학로 희망연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연극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고, <행복한 가족극장> 객석 일부를 문화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공연 나들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가족, 100가지 대학로 이야기' 등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스타 배우들의 이색 사진과 사연을 전시하는 <나의 사랑 나의 대학로> 사진전이 서울연극센터에서 펼쳐졌고, 관객과의 만남 '대학로 사랑방'이



진행됐다. "연극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 사회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연극은 이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관객들에게 공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만큼 애를 쓰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 저는 연극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학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로를 브랜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대학로 대표 협회들이 모여 움직여본다고 하기에 제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 연극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요즘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연극을 통해 자신의 희망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 희망연극 프로젝트 홍보대사 김갑수)

서울문화재단은 이후로도 2015년 메르스 확산, 서울연극제 파행,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비상에도 침여하게 대응하며 대학로 공간에 위기의 바람이 스칠 때마다 힘을 더했다.

**2009년 2월호(vol.24) 대한민국 연극 일번지, 대학로가 발 벗고 나섰다 사진 김호근**





# 34

## 우리가 주목한 발레리나 박세은의 성장

2021년 6월, 파리오페라발레의 '별étoile'이 된 박세은은 그 여름 귀국해 [문화+서울]과 인터뷰했다. 입단 10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선 그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해야 하는 인터뷰는 좀 어렵다면서도 춤 이야기에는 연신 눈빛을 반짝였다. 춤을 향한 욕심과 열정은, 12년 전 '영 아티스트 Young Artist' 코너에 실린 '국립발레단에 최연소 특채로 입단한 발레리나 박세은'에 담긴 모습 그대로였다. 당시 지면에선 박세은을 "발레 여왕의 지위를 획득할 서열 1위의 공주"라 예견했고, 그 희망 어린 예측은 적중했다.

**2009년 국립발레단 입단부터 2021년 파리오페라발레 에투알 승급, 그리고 그사이 서른넷이 된 박세은의 성장을 살펴봤다.**

### 2009

그리고 올해 갓 스무 살의 박세은은 귀향을 결정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입단 허가과 국립발레단 특채 중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녀는 국립발레단에서 보다 굵직한 출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특히 자신을 환호하는 관객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박세은은 프로 무대에서의 첫발을 코르드발레 corps de ballet (군무진)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녀 자신도 "반짝 스타가 되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탄탄하게 밟아 올라가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특채로 들어온 단원들이 주역으로 올라간 전례를 볼 때 그녀의 앞날은 밝다.

프로가 된 지금부터가 박세은에게는 시작점이다. 지금까지의 훈련과 수상과 경험은 모두 프로 발레리나로서 우뚝 서기 위한 것이다. 박세은은 내심 서른 즈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그녀는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른다. 수줍어하면서도 "프로 세계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경쟁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이 더 잘하는 부분은 본받고 내가 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낄래요."라고 아무지게 말할 줄 아는 그녀에게서 준비된 스타 발레리나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 2021

그해 2016 있던 승급 시험에서 박세은은 프르미에르 당식르 Premiers danseurs (제1무용수)로 올라섰다. 그녀는 오랫동안 춤을 찾지만 비로소 프르미에르 당식르가 되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붙었다면서 "내 춤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이자, 승급 시험이 아닌 이사회 결정으로 지명되는 에투알이 된 것에 대해 "기다리고 인내한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했다.

"처음 프랑스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춤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전까지 저는 언제나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라도 모든 테크닉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제나 결과도 좋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공연을 보고 알았죠. 제가 알던 춤이 전부가 아니며, 이렇게나 다양한 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예요. 에투알마다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요.

춤에 정답이 있지 않고, 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람마다 풍기는 오라 aura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춤을 춘다면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본다. 쉬제 이후 박세은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에 붙는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 그리고 '최초의 아시아인 에투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중요할까 싶어요. 발레는 국경과 인종, 피부색을 뛰어넘는 예술인데, 그런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를 아시아인으로 통칭하기 전에 박세은의 춤을 먼저 봐주길 바라요. '최초의 아시아인 에투알',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제가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에투알이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009년 6월호(vol.28) 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발레소녀, 국립발레단에 최연소 특채로 입단한 발레리나 박세은 인터뷰 및 글 심정민(무용평론가) | 사진 손승현

2021년 9월호(vol.175) 무르익은 춤의 색, 꽃망울을 터뜨리다, 발레리나 박세은 글 김태희(무용평론가) | 사진 제공 에투알클래식



국극 배우 박옥진의 딸로 태어나 다섯 살 때부터 무대에 선 배우이자 국악인 김성녀. [문화+서울]은 2011년 신년호를 통해 '연극이 곧 인생'인 대배우 김성녀를 만나 배우로 살아온 연극사를 들어왔다. 모진 세월 속에서 배척받던 마당놀이를 30년간 이어온 주역, 그의 마지막 무대는 시원섭섭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사실 30년 동안 같은 주역 배우, 같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같은 작품을 했다는 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한 작품이 오래 가는 경우는 있어도 배우들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윤문식, 김중엽 씨와 저는 마당놀이에 청춘을 다 바쳤어요. 하지만 아직 섭섭함은 느껴지지 않아요. 항상 최선을 다했고, 관객들이 '야, 저 사람을 아직도 견재하구나!' 할 때 틀러나고 싶었어요. 나중에 어떤 감정이 들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담담하고, 시명을 완수했다는 자부심이라까 그런 게 더 커요."

그녀가 앞서 말했듯 마당놀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극계에서는 연극이 아니라고, 국악계에서는 국악이 아니라고 일종의 배척을 받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인이자 국악인 김성녀는 마당놀이판을 곳곳이 지켰다. 그녀가 생각하는 마당놀이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 괄시 속에서도 마당놀이에 청춘을 다 바쳤을까?

"기존 우리나라의 연극계는 서양 연극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무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플롯 중심의 문학성이 앞서서 연극, 논리성이 앞서서 연극을 주로 했죠. 그런데 마당놀이는 그야말로 놀이가 먼저예요. 몇 발자국 다가가서 '흥보 집 왔다', 그러면 온 거예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놀이예요. 서양의 잣대로 보면 논리적이지만 우리 잣대로 보면 우리 극의 특징이지요. (...) 또 국악계에서는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하는 소리가 오리지널 소리가 아니라며 인정을 안 했죠. 그건 맞는 소리예요. 우리는 국악을 한 게 아니라 한국적인 놀이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소리와 몸짓을 차용한 것이니까요. 어쨌거나 어느 쪽에서든 마당놀이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 지금 생각에는, 우리는 배척받는 마당놀이를 했지만 결국 정통 연극인들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걸은 것 같아요.

마당놀이는 서양 연극처럼 배우들이 거룩하게 핀 조명 받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까놓고 특 나와서 '함께 노심쇼' 하니 배우들이 신비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로 안 보였던 거죠. 하지만 마당놀이 같은 서사적인 극 전개가 연극사로 보자면 가장 진보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당놀이가 30년을 거치면서 하나의 고전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인의 연극적인 기호도 찾았고, 또 서양 연극과 대조되는 우리 연극의 특징도 찾을 수 있었죠. 외로웠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었어요."

# 47

## 예인 김성녀, 민중의 마당을 품다

2011년 1월호(vol.47) 마당놀이 30주년 고별 무대에 선 배우 김성녀 글 고나리(시인·기자·편집인) | 사진 박정훈·김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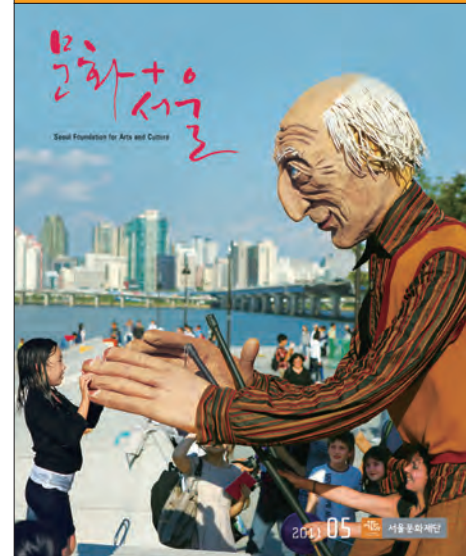




# 51 이달의 특집 #거리예술

그간 [문화+서울]에서 자주 다뤄진 주제 중 하나는 '거리예술'이다. 2003년 처음 시작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꾸준히 형식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왔는데, 2010년 '넌버벌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축제 아홉 번째 시즌인 2011년에는 거리예술을 프로그램 전면에 내세웠고, **이와 함께 통권 51호에는 특집으로 '거리예술'이 다뤄졌다.**

**2011년 5월호 (vol.51)**  
5월의 문화+서울 '함께하는 거리예술축제'  
Intro | Let's go Festival!  
Column | 거리와 광장의 재발견  
Report |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각양각색 매력 탐구  
Keyword 1 | 참여  
Keyword 2 | 감동과 즐거움  
Keyword 3 | 나눔  
World Wide | 세계의 거리예술축제  
Guide | 5월 축제 즐기기



2013년에는 활발한 활동과 함께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리예술의 예술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어떤 배경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할 거리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현황을 짚어보고, 거리예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구의취수장의 진화 가능성을 살펴봤다.

**2013년 9월호 (vol.79)**  
테마 토크 '문화민주주의 시대의 꽃'  
국내 거리예술의 현황  
일본의 거리예술 퍼즐 맞추기  
프랑스 거리예술의 성장과정  
구의취수장의 새로운 미션



2015년, 구의취수장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일상으로 좀 더 가깝게 다가왔다. 거리예술의 원천지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공간의 시작에 맞춰, 서커스라는 장르를 살펴보고, 창작센터의 방향을 가늠하는 다양한 기사를 실었다.

**2015년 5월호 (vol.99)**  
테마 토크 '서커스와 거리예술, 제2막이 열리다'  
칼럼 | 거리예술의 중요 장르 '서커스'의 진화  
리포트 1 | 서커스예술의 기반 조성할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좌담 | 컨템포러리 서커스 음악극 <사물이야기>를 말한다  
리포트 2 | 마이크 핀치가 말하는 호주 컨템포러리 서커스  
리포트 3 | 영국 국립 서커스예술 센터



일 년 중 야외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5월이면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쉽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2016년 5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3화째를 맞이하는 '거리예술 시즌제'와 거리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 실력의 한국 비보이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소개했고, 9월호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로 탈바꿈한 축제의 면면을 공개했다.

**2016년 5월호 (vol.111)**  
테마 토크 '5월, 거리에서 문화예술로 즐기는 봄'  
주말 오후에 만나는 <거리예술 시즌제>  
거리예술의 꽃 비보이, '서울시 대표 B-boy단'이 전한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월드컵야시장  
5월의 밤, 서울 거리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



**2016년 9월호 (vol.115)**  
테마 토크 '드디어 막이 오른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그 새로운 시작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주요 프로그램 미리 보기  
김종석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예술감독  
축제의 의미를 더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모든 문화예술 행사가 불안정하던 때, 서울문화재단은 차 안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서커스, 대형 튜브에 혼자 앉아서 보는 공연 등 전에 없던 축제 풍경을 만들어냈다. 언택트Untact 시대 예술의 지속성과 본질에 관한 고민이 지면에 담겼다.

**2020년 9월호 (vol.163)**  
테마 토크 '2020 서커스&거리예술축제 미리 보기'  
칼럼 | 언택트 시대, 예술의 지속성과 본질을 고민하며 진행되는 축제의 의미  
리포트 1 |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리포트 2 |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거리예술 카라반>  
서커스 & 거리예술축제 지도 | 한눈에 보는 서커스&거리예술축제



# 63 그땐 그랬지, 역대 담당자에게 듣는 뒷이야기





**만남 날** 2023년 9월 5일 화요일  
**만남 곳** 시민청  
**진행자** 연재인(홍보마케팅팀)  
 입사 4년 차, 2022년 6월호(vol.184)부터 현재까지 [문화+서울]을 담당하고 있다.  
**참여자** 최정필(서울예술교육센터)  
 정경미(예술청팀)  
 이정연(금천예술공장)  
 김영민(서울연극센터)

2005년 1호부터 2023년 200호를 만들기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그간 열다섯 명 안팎의 담당자가 [문화+서울]을 거쳐갔다.

**현재까지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옛 담당자를 모아**

**[문화+서울]이 거처온 변화와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대담 참여자의 연차만 더해**

**63년이라니, 그 역사가 더욱 실감 나는 듯하다.**

**[문화+서울] 담당자가 되다**

**최정필** 제가 입사한 2007년에는 문화행정직 채용 시 트랙 구분이 있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은 당시 ‘도시 갤러리’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저는 미술 분야로 입사했죠. 입사 직후엔 사업 부서에서 공공미술 관련 일을 조금 했는데, 얼마 안 가 홍보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미술·디자인을 전공했으니 재단의 디자인 총괄 업무를 맡으라는 거였죠. 그때가 정책지이자 반연간지였던 [문화+서울]의 첫 네 권을 펴낸 직후, 즉 월간지로 전환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월간지를 만들어본 적 없는 담당자·부서·조직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처음 발령받고는 영문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뛰어나는 기억이 나네요.

**정경미** 저는 제가 위해서 [문화+서울] 업무를 맡았어요. 제가 발령 날 당시 홍보팀은 홍보·국제 교류·제휴·IT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팀이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가 월간지였어요. 당시 팀장님께서 제가 [문화+서울]을 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죠.

**이정연** 저도 [문화+서울] 업무를 하고 싶어 홍보팀에 가겠다고 자원했어요.

**김영민** [문화+서울]은 예나 지금이나 재단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입사를 준비할 때 이 책을 열독했던 터라 한 번쯤 말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단에 들어오고 나서는 [문화+서울]이 경력적



김영민(서울연극센터)  
 입사 8년 차, 2020년 12월호(vol.166)부터 2022년 5월호(vol.183)까지 [문화+서울]을 이끌었다.

많은 선배들만 하는 업무구나 싶었고, 홍보팀으로 이동하고 나서는 한동안 언론홍보 업무를 맡아야 했는데요. 홍보팀 인원이 줄어들며 제 입장에선 운이 좋게 [문화+서울]을 담당해볼 수 있게 됐네요.

**잡지의 얼굴, 표지와 판형**

**연재인** [문화+서울]은 창간호부터 4호까지 가로 22센티미터, 세로 27.5센티미터의 크고 두꺼운 책이었다가, 5호부터 12호까지는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의 작은 책이었습니다. 13호부터 지금까지는 가로 22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의 판형을 유지해오고 있고요. 표지만 봐도 전면 캘리그래피부터 시각예술 작품, 공연 사진까지 다양하게 바뀌어왔는데요. 각자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표지와 판형을 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최정필** 제가 맡은 때가 판형이 가장 작을 때네요. 당시 디자이너가 이 판형을 고집하기도 했고, 아직 [문화+서울] 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때라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바람에 판형이나 페이지 수는 예산 상황에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웃음) 또 당시에는 이미지를 누끼따는 게 유행이었어요. 내지에 실린 사람 사진을 전부 누끼 작업해서 표지에도 없었죠. 몇 호 발행하다 보니 시그니처 이미지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후부터는 내지와 관련 있으면서도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사진 한 장을 표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경미** 제가 할 때는 시각예술 작품을 처음 표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재단 창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 나중에는 신당창작아케이드·금천예술공장·잠실창작스튜디오(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포트폴리오까지 범위가 넓어졌죠.

**이정연** 저 때는 ‘표지=시각예술 작품’ 공식이 정착된 후였어요. 매 호 세 가지 표지 안을 가지고 대표님 보고를 올라가며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안 모두 반려되기 일쑤였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대표님께서 담당자의 선택을 많이 지지해주셨어요.

**김영민** 저는 사실 처음 말을 때 판형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작고 가볍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절대 반대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지금 판형으로 계속 만들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애독자를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문화+서울]을 거의 다 모으셨는데 한 가지 크기로 정렬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시는 걸 듣고 쉽게 판형을 바꾸면 안 되겠다고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정경미** 지금 재단 본관 대표이사실 들어가는 벽면이 [문화+서울] 역대 표지로 꾸며져 있잖아요. 그렇게 전시처럼 꾸미기 시작한 때가

아마 조선희 대표님 시절이었을 거예요. 당시 대표님께서 ‘이 표지들이 담당자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벽면 조성할 때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표이사실 갈 때마다 제가 담당한 표지를 찾아보게 되고 뿌듯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오곤 해요.(웃음)

**이정연** 요즘도 연말에 12개 호를 모아서 아크릴 액자로 만들죠? 저는 [문화+서울] 업무가 너무 좋아서 각각 2개씩 추가 제작해 하나는 제가



정경미(예술청팀)  
 입사 17년 차, 2011년 4월호(vol.50)부터 2012년 6월호(vol.64)까지 맡았다.

갖고, 하나는 대행사 에디터님께 연말 선물로 드렸어요. 정말 애정이 많았네요.

**정책지에서 정보지로, 시사지에서 기관지로**

**연재인** 표지뿐만 아니라 [문화+서울]이 다루는 내용도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해왔죠. 첫 변화는 아무래도 반연간-정책지에서 월간-정보지로 전환한 시기일 텐데, 어떤 필요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생겼나요?

**정경미** 그때가 저희 모두 입사하기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문화+서울]의 존재 이유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재단이 2004년 창립했는데, 2005년에 지금의 용두동 청사로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당시 해외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를 불러 정책 세미나를 열었는데,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휘발되지 않고 매체에 기록되길 원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상반기에 한 권, 하반기에 한 권 발행해서 서울의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글을 많이 실었죠. 이후에 예술의전당 실무자로 계시던 안호상 대표님께서 2대 대표이사로 부임하시면서 [문화+서울]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재단의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하던 시기라 반연간지는 월간지로 바꾸고, 매달 수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정책 기사보다 우리 기관의 사업 홍보, 서울의 문화예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로 채워나갔죠.

**이정연** 조선희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는 문화예술 ‘시사지’로 매체 지향점이 변했습니다. 굵직한 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하시다 [씨네21] 편집장을 지내셨으니 잡지에 관해선 여느 직원보다 훨씬 더 전문가셨죠. 당시 대표님은 [문화+서울]이 기관지가 아닌, 일반 잡지와 견줄 수 있는 시사지가 되길 바라셨어요. 덕분에 담당자인 저도 시사에 계속 관심을 두고,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글을 쓸 수 있었죠. 신경숙 작가 표절 사건, 세월호 1주기 추모 공연 등을 다룬 기억이 나네요.

**정경미**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요?

**연재인** 현재는 ‘기관지’가 저희 정체성에 가장 부합한 것 같습니다. 전체의 60퍼센트 정도는 재단의 주요 사업 소식을 단신, 화보, 심층



최정필(서울예술교육센터)  
 입사 17년 차, 반연간지에서 처음 월간지로 바뀌었던 2007년 7월호(vol.5)부터 2008년 2월호(vol.12)까지 담당했다.

기사, 인터뷰 등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 밖의 40퍼센트는 해외 문화예술계 동향이나 예술가 인터뷰, 장르별 연재 칼럼 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연재인** [문화+서울]을 만들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각자의 기억 하나씩 공유해주신다면요.

**최정필** 예술가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미술 전공이라 미술



분야 작가들의 성향은 경험해봤지만, 다른 장르는 잘 몰랐거든요. 유명 배우나 연출가가 인터뷰 자리에서 취하는 액션, 그들이 풍기던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누구는 만나마자 다짜고짜 반말하고, 또 누구는 술 안 먹고는 인터뷰 안 되겠다고 하고, 하하.

**정경미** 저는 마감에 쫓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월간지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정에 내 삶을 맡겨야 하는 업무죠. 한번은 어떤 필자에게 인터뷰 원고를 맡긴 적이 있는데, 마감 날도 훌쩍



이정연 (금천예술공장) 입사 17년 차, 2014년 6월호(vol.88)부터 2016년 4월호(vol.110)까지 담당했으며, 100호 기념호를 진행했다.

넘기고 결국 인쇄 직전까지 원고를 안 주는 거예요. 전화해도 처음엔 알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잠수 타고... 그런 와중에 태연하게 다른 행사에 나타나고,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날죠. 둘째 임신 중이어서 애가 오늘 나오네 내일 나오네 하던 때였는데, 결국 새벽 네 시 반에 원고를 넘겨받아 사무실에서 교정 보고 오전 여섯 시 반에 찍으로 교정지를 보낸 기억이 있네요. 당시 팀장님은 여차하면 그 기사 빼버리라고 나름의 위로를 해주셨는데,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여섯 페이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빼냐고요! 정말 식은땀 났죠.

좋은 쪽으로 기억나는 건 송현민 평론가예요. 당시 송 평론가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메일을 한 통 보냈더라고요. 국악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문화+서울]에 글을 쓰고 싶다면서요. 때마침 국악 분야의 필진을 찾고 있었고, 그당시에도 워낙 글이 좋아서 믿고 맡겼죠. 어느새 보니 엄청 유명한 평론가가 되셨더라고요. 몇 년 전 재단 사업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를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되게 성실하고 글 잘 써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마감일도 물론 잘 지키셨고... (웃음)

**최정필** 초창기에는 필자 섭외하는 게 어려웠죠. 지금이야 [문화+서울]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하는 곳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연재인** 이정연 매니저님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애환이 있으신가요?

**이정연** 잊고 있었는데 제가 [문화+서울] 100호를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와서 생각났어요. 책을 들춰보니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는 국문학 전공인데 조선희 대표님을 대학 시절부터 선망해왔어요. [씨네21]을 늘 갖고 다녔거든요. 그런 분이 대표님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또 때마침 제가 [문화+서울]을 맡고 있어서 잔뜩 긴장했죠. 그래서인지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도 대표님께 건넌 건너 칭찬 들었을 때예요. [문화+서울]을 맡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간부회의에서 저희 팀장님께 칭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연이 [문화+서울]을 잘 만들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전해 들곤 며칠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회사를 다녔네요. (웃음) 팬으로서 존경해온 분께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문화+서울] 200호를 넘어**

**연재인** 과거 이야기를 한참 했네요. (웃음) 각자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문화+서울] 200호에 축하와 조언을 부탁하려고 될까요.

**김영민** 이번 대담 덕분에 돌아봤는데 제가 18개 호를 만들었더라고요.

**정경미** 많이 했다.

**김영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단에 입사하기 전부터, 어쩌면 재단보다 [문화+서울]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종이 잡지를 폐간하고 웹진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걸 고려해보라는 압박이 있었을 때는 정말 막고 싶었어요. 물성이 없는 [문화+서울]은 웬지 [문화+서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줄지에 휴·폐간 없이 꾸준히 지속해온 얼마 안 되는 기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재단 사업들이 워낙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곤 하는데 [문화+서울]은 재단 창립 이듬해인 2005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넘게 이어온 사업이에요. 재단 안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 중 하나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버'가 답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웃음) 이제는 [문화+서울]이 '존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앞으로도 잘 버텨서 좋은 잡지가 꾸준히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정경미** [문화+서울]이 참 기특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300호를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꼭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화+서울]을 담당할 당시 큰애는 재단 건너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작은애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교정을 보는 시즌에는 야근이 필수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회사 동료들이 데리고 와줬어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아이에게 치킨 사 먹이며 놀아주고, 한편에서는 제가 업무를 봤죠.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육아 도움을 받기 쉽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잡지라 그런지 애착이 더욱 큼니다. 대표이사실 앞 벽면을 지나칠

때 후배들에게 '내가 이거 이거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벌써 벽이 가득 찼던데, 새로운 벽을 찾아가득 채울 때까지 [문화+서울]이 무사히 잘 있어줬으면 좋겠네요.

**이정연** 예나 지금이나 [문화+서울]을 단순 '기관지'라고 하면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담당자도 생각이 많을 것 같고요. (웃음) 그런데 이제는 기관지라는 말을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의 서울문화재단과 지금의 서울문화재단은 분명 다르거든요. BTS의 팬덤 이름인 '아미'가 '대중'을 뜻하게 된 것처럼,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일만 잘 담아도 문화예술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이 문화예술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문화예술 관련해 선도적으로 이슈나 의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기관지를 표방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문화예술이라는 자부심으로 기관지를 꾸준히 유지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최정필** 저에게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의 얼굴이자 인상입니다. 우리 재단이 서울 문화예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우리 재단이 내는 기관지는 문화예술계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서울의 미래, 문화예술의 미래를 담은 얼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정연** 이 분위기에서 지금 담당자의 심정은 어떤가요. (웃음)

**연재인** 저는 비교적 최근에 입사해서인지 처음 업무를 맡은 순간부터 [문화+서울]이 늘 위기에 닥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화+서울]의 미래에 대해 웹진 전환, 계간 전환, 폐간 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호까지 나온 게 기특하다는 마음이 제일 큼니다. 사실 제가 200호를 내는 순간에 [문화+서울]을 맡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우연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을 한 줄 더 남기게 됐으니, 제가 맡는 한 또 열심히 만들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새삼 하게 됩니다. 오늘, [문화+서울]이 걸어온 길에 대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잡지를 낼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85

## 2014 - 2023

### 연출가 이경성의 나침판



이경성은 일상 공간이건 극장의 공간이건 그곳에 틈을 내서 공간을 새롭게 배열한다. 그와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늘 보이지 않던 서사가 발견되고, 일상에 묻혀 있던 시간과 공간이 존재성을 회복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서술적 연출가라기보다는 구성적인 연출가다. 그리고 여전히 보수적인 한국 연극계를 향해 동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젊은 연출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문화+서울]은 그가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극장편>2014을 선보인 해 인터뷰를 청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다.

**연재인** 스스로 극장은 '불온한 공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연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사회적인 맥락이 담겨 있는 것 같다.

**2014** 금기시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주류에 대한 반작용이 되었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작용이 되었건, 원가극장 밖의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이 극장 안에서 생겨야 이것이 극장 밖으로 나가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남의 역사>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긴급한 이야기를 가지고 극장에서 다뤄야하겠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부모를 살해한 청소년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인의 도덕성만 공격하면서 패륜아로 낙인찍고 있더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 맥락에 대한 시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구조가 개인을 만들지만 막상 그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문제적인 구조를 극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2023** 극장이 불온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현실에 대한 개개인의 감각과 경험도 그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기에, 우리의 세계가 어떠한지, 세심하고 세밀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여 지금의 극장 안에서 어떻게 '거리두기'의 시간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거리두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불온한 극장'은 스스로의 모순을 직시할 수 있는 거리두기를 통해 생겨난다고 본다.

**연재인** 좀 추상적인 질문 같은데, 갑자기 이경성에게 연극이 뭔지를 묻고 싶다.

**2014** 처음 연극 공부를 할 때는 거창하게, 예컨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금방 고꾸라지겠더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관객들 역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화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화의 천만 관객이 부러울 때가 있었다. 확실히 영화가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그 천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허상이다. 그래서 나는 일대일 공연도, 네다섯 명 관객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다.

**2023** 연극은 나를 살아 있게 하고, 이 세계를 탐험하게 이끌어주는 '나침판'이다.

2014년 3월호(vol.85) 공간을 탐험하는 자, 공간을 다시 쓰는 자 글 이경미(연극평론가) | 사진 박정훈



# 88

## 2014 — 2021 — 2023 배우 박상원의 서울, 마이 소울

확장 시절을 비롯해 관록의 배우가 되기까지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배우 박상원에게 서울이란 어떤 도시인가.

2014 해외의 수많은 나라를 다녀왔다. 대학 시절에는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곳에 와서 뭘 보며 뭘 느끼고 갈까, 안 좋은 것만 보고 돌아가서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에는 무엇이 있고 서울 사람들의 삶과 역사적·문화적·오락적인 가치는 어디에 가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스스로도 답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 행복하다. 해외에 나갔다가 서울로 돌아올 때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다.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 거대 도시에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생활 저변과 그에 반하는 과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이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함께 어울려 꿈틀대면서 도시가 살아 숨 쉬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3 개인적으로는 자연인 박상원, 예술인 박상원, 무용인 박상원, 교수 박상원 등 나의 다양한 역할의 자양분이 되는 도시인 것 같다. 2014년에 비해 오늘날 서울은 훨씬 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문화예술이 춤추는 도시, 전 세계인의 시선이 향하는 도시이지 않은가.

현재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외부에서 본 재단과 이사장으로서 마주한 재단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나.

2021 돌아보면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일들을 다양한 계통에서 듣고 보고 체험하며 재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 이번엔 이사장으로 오게 되면서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됐다. 재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서울은 대표성을 띤 도시이기에, 서울의 문화예술은 곧 대한민국의 예술이고, 나아가 세계 문화예술을 견인하기도 하지 않나. 평생이 계통에 있으면서 재단과 인연도 맺어서인지 이사장이라기보다 한 명의 예술인으로 함께하게 됐다는 점이 설레고 기대된다.

2023 내년이면 서울문화재단이 20살 성년이 된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가지 아쉬움을 꼽자면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많은 것에 비해 아직 시민들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것 같다. 성년을 맞는 내년에는 조금



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재단이 되었으면 한다.

[문화+서울]이 벌써 200호라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이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문화예술 전문 잡지의 기능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200호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많은 재단 직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로 전합니다.

2014년 6월호(vol. 88) 아레나 스테이지 극장, 내 자리가 바로 저기대 글 이규승(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사진 주성용



2021년 12월호(vol. 178) 배우, 그리고 높은 곳을 품으며 달려가는 사람 인터뷰 이규승(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정리 김영민



# 99

## 2015 — 2023 연출가 고선웅은 여전히 연극이 재밌다



2011년 초연하고 2015년에는 명실상부 남산예술센터 대표 레퍼토리로 불린 <푸르른 날에>를 처음 본 관객들은 좀 낯설기도 했다. '이 장면에서 웃어도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도 '큭큭'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맞닥뜨렸기 때문. '농담 같은 진담', '슬픈 농담', 연출가 고선웅을 수식하는 말 가운데 '농담'이라는 단어가 많은 이유다.

2015 연극의 본질은 농담이예요. 진담은 없어요. 농담을 통해서 그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연극을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 하면서 얘기하는 데,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 무대에 들어왔을 때 정확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면 그건 겪은 게 아니예요. 연극은 철저하게 허구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건 허구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죠. (...) 제가 수원에서 세월호 이야기로 만든 연극을 올렸는데, 그때도 단원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행복하게 연극을 해야 한다'라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슴 아파하면서는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해요.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린데. 그것을 뛰어넘는 연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게 슬픈 연극이라고 할지라도 연습하다가 재미없으면 말아야죠. 슬퍼도 재미있어야죠.

2023 연극의 본질은 오락성이죠. 더해서 교훈이나 감동도 있으면 보람이 더욱 크고요. 무대에서 배우가 노는데 관객이 보기에 좋다면 어느 정도 연극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작업에서도 그런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나름대로 재미와 오락성을 넣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제가 시사하는 바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품성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중성이 연극의 기본 전제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려운 연극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선과 악처럼 주제도 될 수 있으면 보편타당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2011년 대한민국연극대상, 2015년 동아연극상을 받은 이래 꾸준히 주요 연극상에 이름을 올린 그는 단연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출가다. 그러나 점점에 올랐을 때, 도리어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이야기할만큼 담담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다.

2015 저는 동아연극상을 받았을 때 가장 흥분했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립극단에서 예술감독을 하면서 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 감정에 빠져 연극을 즐기지만 했는데, 도립극단에 있으면서 연극의 사회적 책무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관객과의 접점을 찾아서로 '상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늘 '이 작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있기 때문에 도도해지려야 도도해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잘해야겠다는 압박이 있을 뿐이죠. 제가 작년에 <변강쇠 점 찍고 옹녀>란 작품으로 차범석 희극상을 받을 때 '별로 감흥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상을 받고 나니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건방진 자식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원하던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잠깐은 행복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곧 또 다른 고민이 채워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3 '지금 연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나이가 더 든 것 말고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연극도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풍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관객의 인내심이 예전보다 줄었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위기의식이랄지, 조바심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도 연극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끈을 붙잡고 버티는 느낌이에요. 격변의 파고 속에서 어떤 연극을 해야 바람직할지 늘 고민합니다. 일단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어차피 연극은 유행을 따라가기에는 발이 꽤 느린 장르거든요. 다소 진부하더라도 연극의 가치를 잘 구현하는 서사와 연극성에서 해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연극의 원형을 다시 찾고 싶어요.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연극은 늘 어려운 와중에도 질긴 생명력으로 인간의 삶을 통찰해왔으니까요.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숭배된다는 건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요. 결국 인류는 여전히 객석에 앉아 물끄러미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서 위로받고 싶어 할 것으로 믿어요.

2015년 5월호(vol.99) 화해를 건네는 연출가의 가장 '푸르른 날에' 글 이정연(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사진 김창제







# 108

## 2016 - 2023

### 여전히 다정한 시인 이우성

**외부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활동은 궁극적으로 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게다가 2023년 현재, 회사의 대표 아닌가.**

**2016** 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살진 않는다. 나는 자본주의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을 놓치고 싶지 않다. 외제 차 타고 싶고, 명품도 비싼 옷도 좋아한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입이 큰 이유인 게 사실이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나에게겐 그것이 사소하지 않다. 이렇게 내가 속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건 그게 이 시대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소비, 욕망, 자본주의 같은 것들 말이다. 내가 그 욕망의 일선에 있는 사람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품 옷을 사는 건 시와 아무 상관 없지만 또 아무런 상관도 없진 않다.

**2023** 회사 일이 많아서 시 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적다는 정도? 다만 이런 변화는 느낀다.

시적 언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상업적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에서도 더 나아간, 감각의 언어들. 그걸 시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상업 콘텐츠를 더 빛나게 한다. 대중문화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본다.

**외부에서 보는 이우성은 '트렌디한 글을 쓰고 감각적으로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문학의 좌표에서 이우성은 어느 쪽에 있는 시인인 것 같나. 그리고 현재의 좌표를 문학이 아닌 문화 전반에서 짚어본다면.**

**2016** 내가 2009년에 등단했는데 2010년 즈음 등단한 시인의 과제란 게 있다. 그 이전의 소위 '미래파'라고 하는, 예를 들어 김경주·김행숙·황병승 등 시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지점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없지 않은 거다. 누군가의 '야류'라고 불리지 않는 게 그 과제랄까. 그 포지션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데, 우리 세대가 그 일을 잘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직 진행형이기도 하고.

**2023**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내가 멋있진 않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만들고 있다.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이끄는 미남컴퍼니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의미 있는 작업,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반복이나 습관에 휩쓸리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겨레신문 금요판 커버스토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맡아서 쓰고 있다. 우리 시대의 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는데, 명명하거나 정의하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기자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서울]과 인터뷰한 2016년엔 내가 필자로서 영향력이 지금보다 강했다면, 지금은 영향력이 좀 줄었다고 생각한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가 부르는

젊은 친구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 나도 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시인이자 잡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중에게 시는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나.**

**2016** 나는 그런 면에서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데, 문학은 숭고하고, 독자에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문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안 팔리더라도 문학이 존재한 이유는 한두 사람일지언정 독자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고, 시는 더더욱 그렇다고 본다. 시가 소비재의 측면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모국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숭고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인류가 발전하는 계기를 몇몇 예술 장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문학이 가벼운 소비재가 되는 건 종말에 가까운 일로도 본다. 물론 소비재가 아니라고 해서 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걸 재미있게 쓸 이유가 시인에게 있다.

**2023**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무엇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사라졌거나 줄었다고 본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슬픔은 주지 말자, 시를 쓸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다음 시집은 언제쯤 낼지 궁금하다. 더불어 지금 하는 여러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문학인지, 혹은 문학을 통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도.**

**2016** 시집 계획은 아직 없다. 문화예술계에 빛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자꾸 거론되는 검열 논란도 그렇고, 시대는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찌 됐든 내게 재주가 있어서 시를 쓰고 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하는 일, 소외되는 사람에게 단 한 줄이라도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으면 한다. 시든 산문이든 이 '헬조선'에서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거기에 내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 내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다정한 언어로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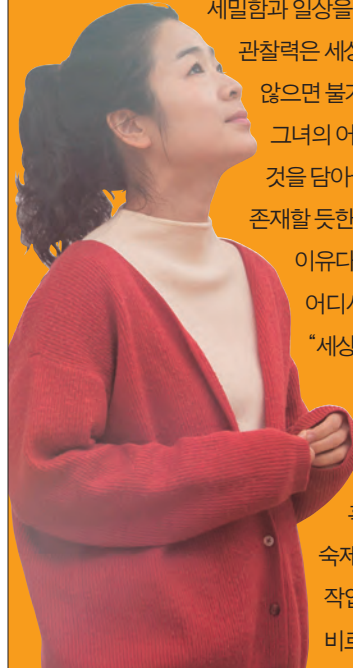
2016년 2월호(vol.108) 작가에게 선물되는 책, 대중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글이아템 | 사진 김창제

# 118

## 2016 - 2023

### 아티스트 이자람의 '커다란 세계'

**2016년의 대화** 목소리 단 하나만으로 세상의 온갖 의성어, 의태어를 모두 표현하는 세밀함과 일상을 오롯하게 가져오는 관찰력은 세상을 웬만큼 훑아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녀의 어딘가에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담아놓고 숨겨둔 주머니가 존재할 듯한 의심 아닌 의심이 드는 이유다. 이자람에게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어떻게 얻냐고 묻자, "세상을 얼마만큼 컬러풀하게 받아들이냐는 물음이나"는 질문이 되레 돌아온다. (...) "저도 거의 세상을 흑백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숙제죠. 흑백이었던 제 삶이 작업할 때 먼지를 털어내고 비로소 애써 색깔을 입는



# 124

## 2017 - 2023

### 거슬러 성장하는 무용가 김용걸

올해로 50대에 접어들었다는 김용걸은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불과 5년 전이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했다. 여전히 안무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창작자이지만 요즘은 우리 발레계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미래 세대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가끔 운이 좋을 때예요." **2023년의 대화** 지난 인터뷰로부터 지금의 삶은 조금 더 컬러풀해졌나요, 아니면 흑백의 시간이 길어졌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무엇에서 발견하나요.

"이번 인터뷰를 위해 지난 인터뷰를 읽으면서 '멋있는 말 많이 했네' 감탄했습니다. 아마 삶의 챗터 하나가 마무리되어야 하던 시기에 했던 인터뷰인가보다, 너 참 고생했구나, 생각도 했고요. 저는 잘 지냅니다. 그 사이 반려견 로키를 만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일구고,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조금 더 공부할 것들이 주어졌고, 계속되는 삶 사이의 호된 가르침 속에서 매일 열심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서 생을 지속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을 굳이 말하자면—어쩌면 전과 달라졌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한숨 돌리며 내 생을 이루고 있는 일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순간이 전보다 조금은 주기가 짧아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매순간에 숨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찰나에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6년의 대화** 이자람은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 판소리가 주는 힘을 믿었고, 특히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 유산을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사는 데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를 잘해야겠다, 명창이 되어야겠다 등은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소리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2017** 김 교수는 이날 파리오페라발레를 나올 때 동료들이 선물해준 책을 오랜만에 펴들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무용가 겸 안무자인 루돌프 누레예프의 사진집으로, 함께 활약한 동료들의 사인이 가득하다. 잠시 회한에 젖은 눈빛으로 그 사인들을 지그시 바라보던 김 교수는 누레예프와 동료들처럼 끊임없이 창작하는 예술가들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인간은 창작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창작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곳에서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 슬픔, 즐거움이 다 보여요. 그 과정에서 받는 감동이 저를 살아 있게 하죠. 힘들어도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2023** "창작에 대한 열정이 좀 식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자람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질수록 권력이 따라왔고, 사람들이 찾을수록 권위가 붙는 걸 느꼈다. '너 정도면 이래야 한다'는 시선도 그녀를 쫓았다.

"저는 늘 전통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걸 안고 작업해왔죠. 그런데 그것조차 버려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려받은 관습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관습적인 생각, 도제 교육이 준 권위 의식과 소리꾼과 고수는 어때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에 대한 도의적인 선 긋기와 모든 순간을 의심해야 할 때가 온 걸 깨달은 거죠."

**2023년의 대화**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지금의 나에게 '전통'이란 어떤 존재인가?

"전통보다 좀 더 익숙한 '판소리'로 답을 대신하자면, 제게 판소리는 참 아름답고 놀랍고 고마운 예술 장르입니다. 놀라움 만큼 매 순간 새롭게 발견되며, 그래서 배움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장르입니다. 도무지 이를 탐구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커다란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도태되거나 멈추는 것은 모두 제 몫이자 제 그릇입니다."

2016년 12월호(vol.118) 이 소리꾼의 웅송깊은 세계 글 이재훈(뉴시스 기자) | 사진 김창제

꺼내놓으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발레는 무용 안에서도 계속해서 전통을 고수해야 하는 장르예요. 비유하자면 현대무용 하는 애들은 가솔해도 발레 하는 애들은 시키는 대로 '네네' 한다고 하죠. (웃음) 학생들에게도 창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클래스에서도 여러 변박을 쓰거나 기본을 역행하는 동작을 만들어보려고 하죠. 저에게 창작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간다고 느껴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기도 하고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2017년 6월호(vol.124) 성숙한 무용가로 산다는 것 글 이재훈(뉴시스 기자) | 사진 오계옥



# 130

## 잡지 만드는 일의 기쁨과 슬픔

만남 날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만남 곳 서교예술실험센터  
진행자 연재인(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참여자 김보라(국립극장 홍보팀)  
김보람(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  
노민연(서울시립교향악단 홍보마케팅팀)  
정민화(한국영상자료원 KOFA 서비스팀)

창간 이래 18년간 이어온 [문화+서울]은 그간 독자들에게 말 못 할 변화무쌍한 변곡점을 거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건재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종합 월간지로서, 200호를 기념으로 동료들과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균 통권 130호를 자랑하는 다섯 가지 국공립 기관 잡지 담당자들과 만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 잡지의 매력을 탐구했다.** 때때로 '기관지'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될지언정 공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이들이 말하는 '잡지 만드는 일의 기쁨과 슬픔', 함께 공감해주시기를.

### 잡지, '역시 보통 일이 아닌' 것

**연재인**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자 만들고 계신 잡지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문화+서울  
220 x 270mm | 월간  
서울문화재단

2005년 서울의 문화정책을 논하는 무크지로 출발해 2007년부터 매월 발행하는 문화예술 종합지. 시민이 더욱 다채롭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와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노민연**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월간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맡았으니 6년 정도 되었네요. [SPO]는 공연 해설이 포함된 프로그램 북을 겸하고 있어요. 매월 2,500부를 발행하는데, 시즌 패키지 티켓을 구매한 분들과 서울시향 후원자,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와 국공립 도서관 등에 보내는 게 1,500부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00부는 공연장에서 3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으로 보자면 30퍼센트 내외가 클래식 음악 관련한 읽을거리고, 나머지는 저희 공연과 관련한 기사예요.

**정민화**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아카이브 프리즘]이라는 기관지를 맡고 있는데요. 판형이 크고, 두꺼운 편이에요. 이런 형태로 나온 건 2020년 여름부터고, 2008년부터 격월간 [영화천국]을 이어오다가 10년이 넘자 기관 내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필름 아카이브로서 극장·박물관·도서관도 있고, 자료 수집도 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극장에서 상영 기획을 하던 프로그래머였어요. 한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매너리즘이 생길 즈음에 마침 새로운 기관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미션이 생겨서 [아카이브 프리즘] 2020년 창간호부터 맡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프리즘]은 계간지라 분기별로 한 권씩 발행됩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영화나 자료 안에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보여주는데, 그 대상은 물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이슈를 다루는 잡지다 보니 그때그때 편집 방향이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는 편입니다. 현재는 1,500부를 찍고 있는데, 800부 정도는 유관 기관과 도서관, 영화 관련 학과,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 주요 영화인들께 보내고 있고요. 200부는 연초 정기 구독 신청을 받아 일반 구독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부는 영상자료원 행사가 있을 때 고객 겸 홍보용으로 나눠드리고요.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매체잖아요. 그래서인지 구독자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노민연** 저도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정민화** 신청하셔도 되지만, 추첨으로 구독자를 선정합니다.  
**김보람** 당첨 확률이 높은가요?  
**정민화** 아무래도 책 형태이기 때문에

소장을 원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올해 정기 구독 신청 때는 인상 깊은 대사를 남겨달라고 해서 총 800명 정도 응모하셨고요. 그 가운데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보내고 있습니다.

**김보라** 저는 2009년 국립국악원에 입사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악 소식지 [국악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서울에 하나, 지방에 세 개가 있어요. 국악 잡지이면서 기관 소식지 역할도 해야 해서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네 개 국악원의 주요 사업 소개와 리뷰, 중간에는 국악 관련 상식을 전할 수 있는 연재 기사, 뒷부분에는 원내 사업 소식을 단신으로 실고 있어요. 발행 부수는 호당 5,000부 정도인데, 4,000부는 유료 회원들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보내고 1,000부는 원내에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표지에 실는 것도 [국악누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보라** 저희 매체는 최근에 변화가 많았어요. 국립극장은 개관 후 44년 넘게 종이 잡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창간 당시 제호는 [월간 국립극장]이었고, 이후 몇 가지 이름을 거쳐 월간 [미르]로 오랫동안 발행됐는데요. 공연을 올리기 한두 달 전부터 기획하다 보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일주일 전, 하루 전에 공연이 무산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종이 책은 이미 인쇄가 끝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죠. 해오름극장이 재개관하는 시대 흐름과 맞물리기도 해서 디지털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높아졌고, 2021년 7월부터는 온라인 정기간행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 꼬박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르]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꾸준히 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POD 방식으로 소량 인쇄를 병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수를 2,000부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월간 국립극장'이라는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쉽지 않더라고요. 종이 책은 인쇄를 넘기면 대략 3일 후에 책이 나오는데, 웹진은 글자마다 코딩을 거쳐야 해서 원고 마감 후에도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요. 내년에는 별도의 웹 페이지를 없애고 국립극장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연재인** [문화+서울]도 현재 종이 책과 웹진 발행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전환한 국립극장이 다시 종이 책으로 돌아가는 게 고무적이네요.

**김보나** 다시 종이 형태로 돌아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독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웹 기반 서비스를 유지하되 형식을 간소화하고, 종이 책과 병행하는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민연** 이전에 [미리]는 몇 부씩 발행했나요?

**김보나** 제가 2018년 3월 입사했는데요. 당시 월 8,000부 발행했고, 이후 예산이 삭감되면서 2019년에 5,00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보람** 예산이 얼마나 줄었나요?

**김보나** 처음 담당할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1억 원 정도 예산이 감소했어요.

**김보람** 저희는 기관 내에서 [월간 국립극장]과 은근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웃음) 국립극장처럼 월간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사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김보나** 한때 홍보팀 전체 예산 중 종이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웹 형태로 전환하면 종이값을 아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죠. 그런데 웹진은 기본 개발 비용이 들어요. 구조를 바꾸거나 디자인 변화를 꾀할 때마다 비용이 더해지고요.

**노민연** 그냥 보기엔 잘돼 있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었군요.

**변화와 고착의 기로에서**

**연재인** 국립극장에서 웹진으로 전환했다가 종이 책을 병행하는 흐름을 설명해주신 김에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문화+서울] 200호에 기해 여러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요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문화+서울]은 2005년 6월 창간해 첫 두 해는 반연간지였고, 2007년 7월부터는 계속 월간지로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자축하는 이유는 [문화+서울]이 내외부에서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예산 삭감과 형태 전환에 관한 요구를 매년 심심치 않게 들었죠. 다른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것 같아 각각의 매체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카이브 프리즘]도 [영화천국]을 접고 다시 시작하셨다고요.

**정민화** 한국영상자료원은 예술의전당에서 2008년 상암동 청사로 독립했고, 이즈음 [영화천국]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더 이상 다들 주제가 없더라고요. 한계에 도달한 거죠. 다른 기관지들도 빠르게 변화던 시기여서 저희도 개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영상자료원이 하는 일을 소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제 창간 준비호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잡지가 한 번 읽히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 종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SPO PHILHARMONIC**  
 SPO 180×240mm | 월간 서울시립교향악단  
 2006년 창간, 공연 프로그램 복의 기능을 겸하며 단체의 공연 정보와 클래식 음악 전반에 관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시즌 티켓 구매자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일부 수량은 공연장에서 무료로 판매된다.

그래서 이왕 종이 책을 만들 거라면 수집할 잡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모으려고 할지 고민했죠. 당시 [매거진B]처럼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잡지가 주목받았는데요. 영화 콘텐츠를 디깅digging하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가 가진 자료로 소장 가치 있는 잡지를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내에서는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도 기관지이니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뤄야 한다는 거였죠. 다행히 당시 기관장께서 담당자의 뜻을 들어주셔서 첫 번째 호인 '90년대 영화 전단' 특집이 나왔는데, 책이 완전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원내 반대 의견도 많이 사라졌고요. 대신 기관의 활동 소식은 최대한 뉴스레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노민연** 저희는 폐간하거나 중단한 적은 없는데 제호와 판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SPO]는 프로그램 복으로도 판매되는데, 이전 판형은 공연장에서 보기엔 너무 컸거든요. 로비에서 떨어뜨리더라도 하면 소리가 크게 나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쉽고 가벼운 판형으로 바꿨습니다.

**연재인** [SPO]는 매체 창간부터 프로그램 복으로 판매할 것을 염두에 두셨나요?

**노민연** 그렇죠. 프로그램 복, 기관 소식지, 클래식 음악 잡지. 이렇게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연이 한 달에 네 번 정도 있고, 한 번에 200~300부씩 팔리죠.

**연재인** 프로그램 복 기능이 있으니 [SPO] 역시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겠어요.

**노민연**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배송이 조금 늦어지면 '왜 안 오냐', '공연 전에는 받아야 한다'는 전화도 종종 받고요. 3천 원이면 사실 제작 원가도 안 되지만, 무료로 배포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여전히 프로그램 복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국립극악원 기관지는 1989년 계간 [국악소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전단 형태의 신문에 가까웠고요. 2006년부터 제호를 [국악누리]로 정하고 판형을 바꿔 월간으로 발행하다 2009년부터 격월 주기로 정착했습니다. 당시에도 예산 문제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무가지고 배포용이다 보니 좀 더 작고 가볍게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매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책을 꽂아놓으면 나란히 같은 크기로

서 있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 나름의 논리는 전통예술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 몇 가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논리가 언제까지 같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대신 무게를 줄이려고 종이를 재생지로 바꿨어요. 환경을 생각하면 국가기관에서 재생지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소소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표지인데요. 2011년 개원 60주년을 맞아 일러스트를 표지로 실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 그 후부터 공모전을 통해 표지그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네요.

**정민화** 일러스트 공모는 특정 주제를 정해두시나요?

**김보람** 주제를 정하면 창작자의 생각 폭을 좁히는 것 같아서 국악 소재 전반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국악 소재를 다채롭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정민화** 판형을 유지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모으는 입장에서도 외형이 바뀌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블루레이 박스 세트도 내거든요. 근데 케이스에 있는 영상자료원 로고 위치가 한 번 달라진 적이 있어요. 그때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꽃았을 때 일렬로 예뻐야 하는데 애만 된다고. 그래서 판형을 바꾸는 순간 민원이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재인** [문화+서울]도 판형과 제호에 대한 고민은 매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새롭게 시도하려면 외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쉽게 떠오르니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른 건 다 바뀌고 되는데 판형만 바꾸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려요. 김보람 선생님과 비슷한 마음이라 공감 많이 됐습니다.

**오직 '잡지'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

**연재인** 콘텐츠 얘기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 '문화' '재단'이니 내용 면에서 최대한 많은 장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른 기관은 장르 특성이 강하고, 주제 폭이 좁아 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악누리**  
 225×275mm | 격월간 국립국악원  
 1989년 계간 [국악소식]으로 시작해 발행 주기를 변화하며 이어오고 있다. 서울 및 지방 국립국악원 소식을 중심으로 전통 공연예술 장르 전반을 다루며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주제를 발굴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콘텐츠를 구성하시나요?

**김보람** 저희는 국악 이외의 콘텐츠는 거의 실지 않고요. 국악계 전반에 관한 연재 기사를 다루긴 하지만 국악원 소식이 중심이 되는 편입니다. 지방 국악원도 세 군데(민속·남도·부산)나 되기 때문에 각 원의 대표 사업만 해도 다룰 소식이 꽤 됩니다.

**정민화** [아카이브 프리즘]은 연간 4개 호가 발행되는데, 산발적으로 주제를 정하면 잡지의 연속성을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4개 주제, 좀 더 나아가서는 차년도 주제까지 생각해주는 편입니다. 특히 매년 마지막 호는 '필름 아카이브 투데이' 특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처럼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있는 필름 아카이브를 다루는 기획이예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죠.

**김보나** [미리]를 발행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는 국립극장이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국립극장 무대에 오르는 공연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20편 기사가 실린다고 하면 그중 5편 정도가 공연예술계 전반에 관한 칼럼이고, 나머지는 극장의 사업을 소개하죠.

**연재인** 콘텐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각각의 매체에서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혹은 가장 추천하는 콘텐츠를 알려주신다면요.

**김보나** 너무 어렵네요, 너무.  
**정민화** [아카이브 프리즘]은 매번 콘텐츠가



달라서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네요.(웃음)

**노민연** 저희는 공연 해설이나 인터뷰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클래식 음악 관련 칼럼인데요. 그중에서도 ‘인덱스 노트-IN-DEPTH NOTE’를 알고 싶네요. 그달의 주요 프로그램에 관한 깊이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호에는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물의 요정에 대한 칼럼이 실렸어요. 음악 외적으로 정보를 알아가기에 좋은 코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남몰래 듣는 클래식’을 가장 좋아해요. 비정기 연재 코너인데, 다양한 필자가 각자 클래식 음악을 향유하는 방법에 대한 에세이를 써주세요.

**김보람** 그럼 저는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코너 ‘새로운 시선’을 소개할게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문화를 다루는 코너예요. ‘전통의 현대화’가 극장의 모토이기도 해서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섭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칼럼인 것 같아요. 책이나 웹페이지 가장 앞쪽에 등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웹진의 장점은 기사당 조회 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클릭 수가 1,000건 넘는 기사 중 다수가 칼럼이더라고요.

**김보람** 저도 하나만 꼽기가 어려운데, 일단 국악원 내부와 관계된 걸 제외한다면 송준호 필자가 연재하고 있는 ‘다시 만난 전통 춤’이요. 전통 춤 종목을 깊이 있게 소개한 콘텐츠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카이빙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아카이브 프리즘**  
225×297mm | 계간  
한국영상자료원

2008년부터 발행한 격월간 [영화한국]에 작별을 고하고, 2020년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계간지 [아카이브 프리즘]을 내고 있다. 현재 통권 13호(2023년 여름호)까지 독자와 만났다.

3년째 연재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기획한 쪽지는 ‘숨은그림찾기’예요. 2013년에 국악 소재의 동화를 연재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면을 늘 고민하는데, 올해는 이 코너로 어린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고를 받을 때 제일 재미있게 읽는 건 ‘토끼 굴에서 만나는 국악’이라고. 참신한 국악인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칼럼이에요.

**노민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 굴인가요?

**김보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필자인 성혜인 음악평론가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제가 국악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새로운 국악인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김보나** 저도 그 코너 좋아해요. 소개하는 아티스트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좋더라고요.

**잡지 만드는 일의 기쁨**

**연재인** 이번에는 독자 얘기를 해볼까요. 좀 전에 국립극장은 웹진 조회 수를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나 피드백이 들어오는 경로가 있나요?

**김보람** 저희는 독자 엽서도 받고 1년에 한 번 온라인으로 독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디어도 얻지만 미궁에 빠지기도 하는 건, 일반 독자는 어떤 기사를 좋아할 것이라는 예상이 항상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국악이 익숙하지 않은 소재다 보니 심도를 맞추는 게 항상 관건입니다.

**노민연** 아직도 엽서를 받으시는군요. 저희는 들어오는 게 없어서 없었거든요.

**김보람** 한동안 뜸했는데 다시 독자 엽서가 늘어가는데요. 요즘 손 글씨를 보기가 쉽지 않는데, 정성껏 써주시는 엽서를 보면 기분이 좋죠.

**연재인** 저희도 2022년 2월까지도 독자 엽서가 있었어요. 그때는 엽서가 많이 들어왔고, 정성 들여 써주시는 걸 보며 확실히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예산 문제로 사라지고, 지금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독자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 엽서와 비교했을 땐 반응률이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종이 엽서를 부치는 것에 비하면 QR 설문은 접근이 쉬운데도 그렇네요.

**김보나** [미리]는 폐간한 지 2년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엽서를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책을 기다렸는데 안 온다’, ‘돈을 낼 테니 책을 보내 달라’ 그런 내용들이죠. 독자 엽서를 보내는 분들과 QR코드가 익숙한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아직 아날로그 감성이 중요할 텐데 그런 걸 너무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화** 저희는 연초에 정기 구독 신청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별개로 특정 주제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걸 느끼는 때는 발간 직후예요. ‘90년대 영화 전단’ 특집이 (반응이) 확 터진 사례거든요. 독자들은 포스터나 의상처럼 비주얼이 예쁜 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외라고 생각한 때는, 작년에 ‘VHS’ 특집을 냈을 때인데요. 저는 비디오 세대이기도 하고 레트로가 유행이었으니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제 자체보다는, 그걸 표현한 표지 디자인이 지금 세대가 받아들이는 레트로한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단 제 세대가 좋아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 방향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연재인** 인기의 높고 낮음은 어떻게 가능하나요?

**정민화** 한국영상자료원 누리집에 PDF 전문을 올리니 다운로드 수를 보기도 하고요. 한 호가 발간되면 인스타그램에 소식을 올리는데, 그 순간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온도 차가 극명해요.(웃음) ‘필름 아카이브 투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품이 되게 많이 들어거든요. 해외 취재도 가야 되고 제안 레터도 많이 써야 하고... 근데 의외로 일반 독자의 반응은 별로인 편이에요.

**노민연** 저희는 네이버 포스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조회 수를 많이 참고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들이 인기가 많으니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확실히 조회 수가 높아요. ‘베토벤의 재산은 얼마인가’ 이런 기사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국공립 기관에서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쓰냐는 의견도 있고, 재밌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외에 저희도 공연장과 온라인에서 비정기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콘텐츠의 심도에 관한 질문이나 보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정민화** 그래서 베토벤은 재산이 많았나요?(웃음)

**노민연** 기억이 잘 안 나네요.(웃음) 베토벤은 모차르트나 하이든처럼 궁정이나 악단에 소속된 게 아니라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곤궁했고, 조카와 소송도 있어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열린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연재인** 잡지를 만들면서 가장 좋은 순간이나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예술가들을 만날 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인터뷰 따라다니면서 얘기 듣는 걸 잡지 담당자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민연** 인터뷰라고 하니 생각났는데, 지난 음악감독님이 핀란드분이셔서 핀란드 대사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 찾아뵈는데 매너도 좋으시고 경직된 우리나라 사무실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핀란드 초콜릿도 내주시고, 무민과 사진도 찍으시고... (웃음) 환대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인터뷰가 담당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아주 짧은 글이라도 주관식으로 답변해주시면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재밌게 읽고 있다고 한마디 인사를 건네주신다거나... 그런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정민화** 작년에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윤여정 특집호를 낸 적이 있어요. 다행히 배우님이 초상권을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잘 만들고, 닥으로 보내드렸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배우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 하시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가지라고 [아카이브 프리즘] 사인본 열 부를 보내주셨어요.

**노민연** 어머니, 세상에.

**정민화** 저는 잡지 발간과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벽찬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김보람** 몇 년 전에 처음 자산취득비를 들어 [국악누리] 보관용 책장을 마련했어요.



**월간 국립극장**  
웹매거진 / POD | 월간 국립극장

1977년 창간해 제호를 바꾸며 43년간 발행하던 종이 잡지를 2021년 온라인 간행물로 전환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로서 국립극장의 사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

‘국악누리’라는 제호로 발간한 지 20년 가까이 되니까 과월호가 꽤 되는데 그간 지하 창고에 쌓아두었거든요. 책을 차곡차곡 넣고 보니 꽤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자 엽서 등으로 독자들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을 때 종종 울컥합니다. 좀 더 잘 해야지 다짐도 하고요.

**김보나** 월간지를 통해 공연에 관한 이슈를 가장 먼저 내보내다 보니 홍보를 선도하는 역할을 종종 하게 돼요. 공연이나 홍보 프로세스의 선두에 있다는 현실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글세어라, 기관지”**

**연재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잡지의 비전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대담 초반에 예산 삭감과 발행 부수 감소에 관해 얘기했는데, 잡지라는 매체는 제가 기억하는 한 꾸준히 사양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든 여기 계신 분들은 꾸준히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종이 잡지가 뒤쳐지는 매체로 보였는데, 최근 레트로·아날로그 감성이 부상하면서 잡지의 물성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여러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비전, 혹은 말고 계신 기관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보나** 출판업계가 사양 산업이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는 태초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도 종이 잡지를 복간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최근 새

기관지를 창간했죠. 물성을 지닌 종이 잡지를 유지하는 건 국공립 기관이 때문에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성의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없애야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은 한 잡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어떤 형태로 변형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죠.

**김보람** 국악의 경우는 장르 특성을 살린 민간 잡지가 거의 없어요. 현재 저희 소식지 외에는 국악을 다루는 잡지가 없기 때문에 [국악누리]가 계속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이면서 기관의 홍보물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어느 단체든 소셜미디어 채널과 뉴스레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잡지가 희소성이 있는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 굳은 의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발행될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해요.

**정민화** 지금이 대담 자리에서만 봐도 서울시향에서 내는 [SPO]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가지인데요. 잡지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무가지일수록 생명력이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업 잡지는 빠르게 변화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데, 무가지는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민간 출판사와 협업하는 것 외에도 이슈마다 해당 주제를 잘 아는 주 편집자를 따로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민간과 협업하면서 정체되지 않는 잡지를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해요. 공공과 민간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민연** 뻘한 얘기이긴 하지만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아들 수 있는 건 그나마 잡지라고 생각해요. 디지털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르죠. 저만 해도 실제로 책을 들고 읽을 때 훨씬 더 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시간을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 잡지의 디지털 전환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는 늘 있지만 종이 잡지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각 기관에서 더 많은 공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연재인** 저는 이번 대담을 준비하며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각자 잡지에 대한 애정으로 눈을 빛내며 설명해주는 걸 보니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오늘 여러 의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 139

## 2018 - 2023 소설가 장강명의 '시스템'

### 2018년의 대화

2018년 9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 공연됐다. 소설가 장강명의 원작을 정진새가 각색하고 강량원이 연출한 작품이다. 공연을 앞두고 <문화+서울>은 장강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15년 이 작품으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았고, 인터뷰가 있던 해 5월 『당선, 합격, 계급』, 7월 『팔과 다리의 가격』을 연달아 내놓으며 창작열을 불태우던 때였다.

장강명은 작가로서의 현재 좌표를 “배를 띄우는 데 성공했고 그다음 과제인 연안 벗어나기도 막이론 상태”라고 말했다. 이제 자신이 가고 싶은 북극성을 향해 먼바다로 나아가면서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대작을 쓰고 싶다고 했다. 대작을 쓰고 싶은 아심과 예술가로서 투쟁하는 태도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작가에게 대작은 어떤 작품인지, 도스토옙스키나 빅토르 위고 말고 현대 작가의 작품으로 예를 들어달라고 하자 그는 미국의 범죄소설가인 제임스 엘로이의 『블랙 달리아』를 들었다.

### 2023년의 대화

지금, 작가로서 현재 위치 혹은 상황을 스스로 다시금 진단한다면 어디쯤 와 있나요?

“5년 전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띄우는 데 성공했고 그다음 과제인 연안 벗어나기도 막이론 상태”이고, 거기서 더 멀리 가지는 못했네요. “가고 싶은 북극성을 향해 먼바다로 나아가면서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대작을 쓰고 싶다”는 마음도 그대로입니다. 자괴감도 약간 들고 조바심도 납니다만, 긴 레이스라 생각하고 꾸준히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대작을 쓰고 싶다고 하셨고, “졸작을 써서 비참해지더라도 자신의 업, 직업, 예술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술가라고

생각해요.”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대작을 쓰고 싶다는 바람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가요?

“네, 그대로입니다. 저의 작가적 테마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균열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이 있는데 각각 월급사실주의 동인이나 『산자들』 연작, STS SF 활동 등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모두 제가 계속 쓰려는 글들입니다. 『산자들 2』에 들어갈 단편을 올해 4편 썼습니다.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어떤 사회의 윤리 기반에 대해서도 생각에 미칩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익 대신 윤리를 제공하지요. 때로 그 기반 윤리가 변하는 전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장편 소설 『재수사』로 연결됐는데, 아마 같은 문제의식으로 소설과 논픽션을 몇 편 더 쓰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호(vol.139) 문학, 또는 장강명이 세계와 싸우는 방식 글 권영미(뉴스1 기자) | 사진 손흥주



2020년 3월호(vol.157) 쟁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연예술계 비상



2020년 5월호(vol.159) 테마트크 | 사회적 위기가 불러온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진실 혹은 대담 | 코로나19와 지역 문화 생태계



2020년 4월호(vol.158) 테마트크 | 재난의 시대와 예술



2020년 10월호(vol.164) 테마트크 | 예술을 통한 회복과 치유 화제 | 코로나 시대, 공연 플랫폼의 변화



2021년 12월호(vol.178) 테마트크 | 견여은2년, 함께 갈2022년



2020년 6월호(vol.160) 진실 혹은 대담 | 코로나19,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긴급 토론회

# 180

## 진실 혹은 대담, 뜨겁고 냉철하게

200호에 이르기까지 <문화+서울>은 솔한 개편을 거쳤다. 많은 코너가 생기고 사라지는 와중에 같은 이름으로 지면을 지킨 코너는 많지 않다. **그중 2013년 4월호(vol.74)에 처음 등장한 '진실 혹은 대담'은 2022년 2월호(vol.180)까지 105개 호에 걸쳐 운영된 대표적인 장수 코너.** 다양한 논점을 가진 하나의 주제를 두고 여러 참여자의 대화를 지면으로 옮긴 이 코너는 당대 문화예술계의 쟁점이 된 사안을 두루 살펴보는 토론장이자 학습장이었다. 여전히 '진실 혹은 대담'을 그리워하는 열혈 독자가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한 그간의 역사를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봤다.

### #예술가의 먹고사는 일

2013년 4월호(vol.74)에 실린 첫 주제는 '지원금을 둘러싼 캐주얼 토크'로, 예술창작



지원사업 지원 작가 또는 심사위원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창작자 여섯 명이 함께했다. '수위는 조절했지만 예술계 안팎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거르지 않은 날 것의 방담'이라는 서문처럼 각자 지원사업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냈다. 이후 2013년 5월호(vol.75) '재능기부를 둘러싼 직언직담', 2013년 9월호(vol.79) '협동조합의 허와 실', 2016년 11월호(vol.117) '아티스트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 등 예술가가 직면한 문제를 다뤘다.

### #문화예술, 시민의 삶 가까이

2014년 서울문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에 2014년 4월호(vol.86)에선 선정 팀 가운데 4명이 모여 '시민이 만드는 문화술루션-소소한 상상에서 위대한 현실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2014년 2월호(vol.84) '시민기자단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문화재단', 2017년 6월호(vol.124) '직장맘의 문화생활 리포트' 등 자리를 마련해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157

## 팬데믹, 그 치열한 기록

2019년 말 발현해 2022년까지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확산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팬데믹 상황은 문화예술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문화+서울>은 2020년 3월호(vol.157)를 시작으로 2년간 16개 호에 걸쳐 팬데믹에 영향받은 문화예술계와 예술인의 상황을 첨예하게 다루며 '시대의 기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 #뜨거운 논쟁의 장

2016년 4월호(vol.110)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2016년 6월호(vol.112) '예술계 표절 논란과 비평의 과제', 2016년 7월호(vol.113)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2017년 10월호(vol.128) '미담문학상과 <미담 서정주 전집> 발간 관련 논쟁'까지. 문화예술계 뜨거운 감자 또한 '진실 혹은 대담'의 단골 주제였다. 이 코너를 통해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이유다.

### #트렌드를 엿보다

2017년 말부터는 공공의 포럼 및 토론회, 민간·학계의 학술회의를 주로 기록했다. 2017년 7월호(vol.125)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토론회', 2018년 5월호(vol.135)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 2020년 6월호(vol.160)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다' 등을 통해 정책 변화의 흐름을, 2018년 10월호(vol.140) '아시아도시문화포럼 2018', 2019년 11월호(vol.153)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 등을 통해서 당연한 과제와 트렌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 199

## 시대와 발맞춘 표지 디자인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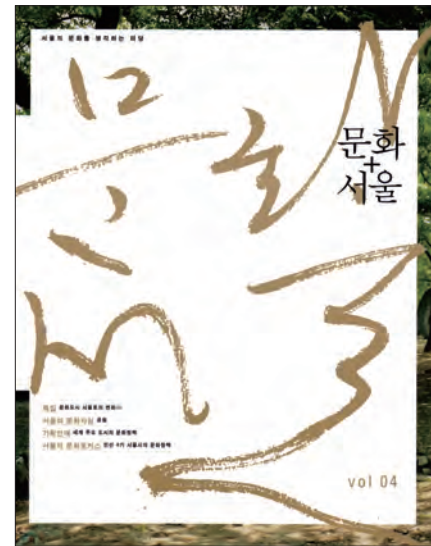
### vol.1 - 2 2005

앞표지를 가로로 나눠 사진과 제호의 영역을 분리했다. 제호는 탈네모꼴 구조의 서울문화재단 CI를 응용해 재구성한 것인데,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발간한 당대 대표 문화지이자 최초의 아트 디렉션 개념을 제시한 [샘이깊은물] 제호(샘이깊은물체)와 같은 스타일이다. 창간호 표지는 발레리나 문훈숙(현 유니버설발레단장)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유재력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촬영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포트레이트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찍은 사진이에요. 연출 없이 그의 생활에 동행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사진적 매력'이 무척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심성을 표출하는 아름다움과 감성이 뛰어났죠. 사진은 언어이고, 인문적 요소가 강해요. 어떤 순간을 남긴다는 건 그 안에 엄청난 철학적 뜻을 내포하고 있죠."

220×275mm | 116~120면 내외 | 표지 무광 코팅, 무선 제본

### vol.3 - 4 2006

창간호의 레이아웃을 완전히 깨고 거친 느낌의 캘리그래피를 그래픽화해 표지 전면에 배치하면서 제호는 오히려 간결하게 명조체로 정리했다. 프레임은 설정하고 테두리에는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책등으로 이어지는 좌측에 변주를 가미해 부피감이 확장되는 효과를 자아낸다. 정기 간행물의 연속성보다는 단행본 시리즈의 느낌이 강하다.



[국악누리] 역시 강병인의 캘리그래피 제호로 변경했고, [문화공간], [문화재사랑], [박물관신문], [민속소식], [저작권문화], [Koreana] 등 문화예술 기관 소식지가 이즈음 캘리그래피 제호를 채택했다.

220×270mm | 90~108면 내외 | 표지 부분 예폭시, 무선 제본



### vol.5 - 12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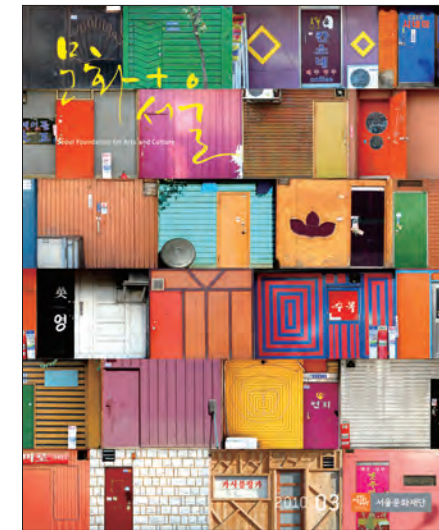
반년 주기로 발행되던 무크지에서 월간지로 전환하면서 표지 역시 대대적으로 변화했다. 한 호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누끼 작업(배경을 제거하고 피사체만 남기는 작업)해 표지에 배치했다. 제호 위치를 좌측 상단으로 옮겨 주목도를 높였다.

190×240mm | 64면 내외 | 표지 무광 코팅, 무선 제본



### vol.13 - 36 2008 - 2010

창간 이래 12호까지 사용한 제호를 캘리그래피로 변경했다. 이 시기 문화예술 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제호 대부분이 캘리그래피였을 정도로 유행이었다. 명조 혹은 고딕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특별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보이며, 글자에 강약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제호를 쓴 강병인 작가는 캘리그래피의 아름다움에 관해 "꽃"이라는 글자는 처음부터 꽃으로 피어나지 않아요. 씨앗으로 있다가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니다. 그러면서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고 숲을 이루죠. 그것은 고딕으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생명력을 품고 있는 글자예요"(2016년 11월호 vol.117 인터뷰)라고 언급했다. 같은 시기에 국립국악원



사용하고, 간단한 작가 소개를 왼쪽에 커버스토리로 넣게 된 겁니다. 우리도 작가의 멋진 작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작가 역시 좋은 잡지의 표지에 실리는 걸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한 표지가 오래 지속될 걸 보니 좋은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220×270mm | 84~90면 내외 | 표지 부분 예폭시, 무선 제본

### vol.74 - 120 2013 - 2017

좌측 상단에 고정된 제호의 크기를 줄이고, 전처럼 작품 이미지를 사용하되 전면에 프레임을 사용해 액자를 전시한 것처럼 변화를 주었다. 작품과 제호에는 예폭시 후가공을 적용해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 작품이 중심이 되도록 제호 색상은 대체로 검정을 유지했는데, 특정 시즌에는 그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지 스타일은 2017년까지 이어지며,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수집하는 것 같은 재미 요소로 작용했다.

220×270mm | 84면 내외 | 표지 전면 예폭시, 무선 제본



### vol.121 - 144 2017 - 2019

표지 스타일은 유지한 채 커버스토리의 비중이 늘어났다. 표지 작품을 보여주는 데서 한발 나아가 2면에 걸쳐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 vol.37 - 73 2010 - 2013

서울문화재단 입주작가의 시각예술 작품이 표지에 처음 등장한 해다. 창작공간 입주작가의 작품과 '바람난미술' 선정작이 표지를 장식하고, 커버스토리에서 작가를 소개했다. 이후 [문화+서울]은 2021년까지 10년 넘게 표지 이미지를 시각예술 작품으로 고수해왔다. 당시 발행인인 안호상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때의 변화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죠. 공간 또는 기금이나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문화+서울] 지면도 하나의 지원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소개하자! 그래서 표지에 작품을

### vol.145 - 169 2019 - 2021

지속해온 프레임 구조를 탈피해 이미지를 표지 전면으로 확장하며 이전의 스타일을 상기했다. 표지로 선정된 작품의 장르 다양성이 드러나며, 판형에 맞게 트리밍trimming해 작가의 창작 의도가 돋보이도록 했다.

220×270mm 68~84면 내외 표지 무광 코팅, 무선 제본



### vol.170 - 180 2021 - 2022

제호의 위치를 중앙으로 옮겨 작품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매체성을 강조했다. 중앙 상단에 위치한 제호가 시각적 주목도를 높였다.

### vol.181 - 192 2022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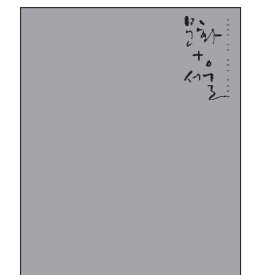
기관지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서울문화재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지 이미지를 현장감이 느껴지는 사진으로 변경했다. 창간 이래 처음으로 제호 구조에 변화를 줬는데, 부피감을 줄였지만 캘리그래피 특성상 고유성은 유지됐다. 한편에는 세로로 띠 형태의 색깔을 넣어 정기 간행물의 연속성을 추구했다.

220×270mm | 60면 | 무선 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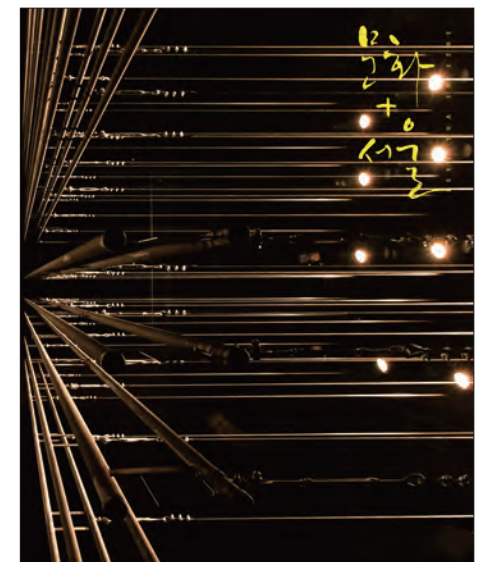


### vol.193 - 2023 -

제호 구조에 한 번 더 변화를 가해 가로가 긴 제호를 세로형으로 정렬했다. 이는 가로세로 비율이 1 대 1.2로 정방형에 가까운 잡지가 좀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자아낸다. 특집 주제와 연계해



현장 사진을 표지에 사용했고, 과감한 크로핑cropping으로 극적 효과를 더했다. 220×270mm | 60면 표지 유광 코팅, 무선 제본





# 200

## [문화+서울]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문구는 2011년 7월호(vol.53)에 처음 등장해 조금씩 변용되며 지금까지 매호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는 세상에 나온 잡지가 여러 공간에 비치되고, 잡지를 매개로 다양한 독자와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잡지를

만들어나가는 바람을 담고 있다. [문화+서울]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우편엽서와 이메일, QR코드 등을 통해 꾸준히 독자 의견을 받고 있다. 200호 발행을 기념해 독자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본다.

“[문화+서울]을 오랫동안 접한 독자입니다. 해마다 독자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 200호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문화+서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상철 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획과 디자인으로 받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선영 님

“에스러운 듯 전통인 듯 제호로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는 [문화+서울]이 벌써 200호라니, 반짝이기는 쉽지 않지만 지속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록이 되어주기 바라요! 축하해요!” ○○○ 님

“200호 축하합니다. 늘 볼 수 있고 늘 함께하는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님

“10년 전부터 읽었는데 올해 리뉴얼은 특히 더 좋았어요.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준 [문화+서울]의 200호 축하합니다.” 박재림 님

“200호 너무너무 축하해요! 2년 전 소중한 기회로 알게 된 문플이 새 표지로 갈아입는 동안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네요! 300호, 400호가 될 때까지 앞으로도 함께해요!” 심유진 님

“공연 보러 가는 길에 로비에서 만나고, 도서관을 오가며 보던 잡지가 200호라고 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했어요. [문화+서울]을 꾸준히 만들어준 서울문화재단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소식을 충실히 재밌게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인아 님



©한민준

# Associates of

- 예술가의 진심  
김우욱이 말하는 연극의 생명력
- 페이퍼로그  
예술교육정책팀 승희조
- 문화+후원  
갤럭시아넥스트×서울문화재단
- 인사이드  
장애예술 기획전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
- 예술단체 아카이브  
노이오페라코러스  
발레에스티피 협동조합
- 해외는 지금  
우리 시대가 폭력적인 지휘자를 대하는 법



김 우 옥 이

말 하 는

연 극 의

생 명 력





“여태껏 연극 연출하면서 일 년에 세 편을 올리는 건 처음이에요.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바로 연습을 들어가니, 시작 일주일 전에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런데도 연습실에서 배우들을 보면 기질이 나와요. 연출가의 본능 같은 거지.”

마주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예전 우리 나이로 구순(九旬). 웃음 띤 얼굴, 유머러스한 말투와 별개로 김우욱의 눈은 그가 말하는 “연출가의 기질과 본능”으로 매섭게 빛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초대 원장을 지낸 실험연극의 대가. 지난 6월 연극 〈혁명의 춤〉을 한예중 레퍼토리 공연으로 올렸고, 기성 배우들과 함께 8월 17~27일 용산 더쥬아트센터에서 다시 공연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딱 나흘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에 〈겹괴기담〉을 선보인다. 올해에만 세 번째 연극이다.

지난해 늘푸른연극제에 이어 1년 만의 재연. 〈혁명의 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전위연극의 대가이자 김우욱과 깊은 인연이 있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1931-1997]의 구조주의 연극 작품이다. 김우욱 연출은 첫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제 작년에 한 것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묻겠지만…” 하며 한발 앞서 스스로 답하기 시작했다. “어제, 농담처럼 무대감독하고 이런 얘길 했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6명의 배우가 등장하는데, 역할을 바꿔 버리면 어떨까?’ 배우들은 힘들겠지만 긴장감이 생기고 관객은 더 흥미로워 할 테니까.” 다행히 연습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배역 바꾸기’는 없던 일이 됐다.

배우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습니다. 우리는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연극이라는 건 뭐냐. 상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이상한 무슨 일이 터질 때 ‘극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일상의 극적인 신기함, 놀라움과 당혹감을 극장에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좋은 장치가 연극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연극성이 강한 〈겹괴기담〉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연극 관객에겐 〈겹괴기담〉 자체가 놀랍고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친절하게 작품을 설명해주신다면요. 놀라기보다는 당혹스러워하지, 하하. 무대에 6개의 불투명한 막이 쳐져 있어요. 5개의 공간이 나오죠. 그 양 끝에 객석이 있어요. 양 끝에서 이야기가



©전영기

시작돼요. 한쪽에 앉은 관객에겐 가까운 쪽은 크게, 먼 쪽은 작게 보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한 칸씩 움직여요. 멀리 보이던 건 가까이 오고, 가까이 보이던 건 멀리 가고. 관객이 유념할 것은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인물은 달라요. 하지만 일어나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관객은 그걸 못 느끼고 다른 이야기 두 개가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헛갈리고, 그걸 쫓아간다고 머리를 쓰다 보면 전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괴기담이 겹쳐 있어서 ‘겹괴기담’인 거군요. 괴기담은 도깨비나 귀신이 나오는 무서운 얘기잖아요. 너무 흔하잖아. 그런데 이 괴기담은 무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만히 들여다보면 엄청 무서워요. 내재한 상황들이 섬뜩하게 하는 고급스러운 괴기담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야기를 미리 알고 봐도 꽤 많은 건가요? 상관없어요. 이 연극을 보는 건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 첫 장면선 비 오는 밤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말을 못해요. 두 번째는 그 비 오는 밤에 실 수 있는 안식처로 데려가지. 가는 과정에서도 사건이 한 번에 하나씩 일어나요. 5개 공간의 양쪽에서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한 칸씩 이동했으니 이제 가운데에서 만났겠죠. 이 세 번째 장면은 도착한 집에서 벌어져요. 거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먹이’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1982년과 83년, 2000년에도 공연하셨죠.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는 아는 사람들도 날 피하더라고, 하하. 어땠냐고 물어볼까봐 당혹스러웠던 거지. 그런데 작년에 공연했을 땐 달라졌어요. 한마디도 않던 평론가들이 보러 오고 나한테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연극을 받아들이는 관객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군요.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연극은 이런 거다’라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이 작품은 그걸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당혹감이 있어요. 통상 연극은 막이 올라가면 1막에서 정보를 줌 주고, 2막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 3막에서 종결되는 뻘한 방식이죠. 지금도 대부분 연극이 그렇고. 관객은 결론이 나오면 그걸 보고 ‘좋았네’ ‘나쁘네’ 얘기해요. 그건 결국 연극의 줄거리가 ‘재미있다’ 혹은 ‘없다’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연극의 줄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제시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줄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줄거리를 따라갈 바에는 그냥 희곡으로 읽어버리든가. 소설을 각색한 거면 소설을 읽으면 되지. 왜 비싼 돈 내고 극장에 가서 2~3시간 괴로워하며 연극을 보냐는 질문이죠. 게다가 나로서는 놀라운 현상인 것이, 이 연극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들이 ‘새롭다’고 해요.

거의 50년이 된 작품을 젊은 관객들은 ‘새롭다’고 느끼는군요. 뉴욕에서 1978년에 올라간 작품이거든요. 왜일까. 50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연극이라는 게 너무 뻘한 거예요. 줄거리 알려고 가고. 배우 발성이 안 좋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 친절하게 자막을 띄워요. 배우들은 글자 하나 틀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요즘 배우들은 ‘자막과 경쟁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막 보고 대사 까먹었다고 할까봐 배우는 더 신경쓰죠. 연극이 대체 뭐길래, 자막과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이야기만 전달하는 매체여야 하느냐. 그런 면에서 〈겹괴기담〉은 파격이에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다만 그 이야기를 조각으로 만들어 해체하는 거죠. 관객이 ‘이게 뭐지?’ 생각하게 되는, 서로 다른 조각을 짝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엔 퍼즐 맞추듯이 작품이 완성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지요.

완전한 블랙박스 구조인 퀴드의 공간이 작품과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동숭아트센터는 내가 동랑청소년극단에서 〈방향하는 별들〉 시리즈(1985-1991)를 공연한 극장이예요. 몇 년 전 예술청에 들렀다가 동숭홀을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마침 제자가 극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던 터라 잠시 구경했는데, 멋진 블랙박스가 되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개관 전이라 이름도 없을 때였는데, 보자마자 이곳에서 〈겹괴기담〉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올해 〈겹괴기담〉을 초청하고 싶다는 퀴드의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운명이지요.

길게 양 끝에 객석을 배치하는 작품 특성상 많은 관객이 보지는 못하겠네요. 무대 전체 길이가 7미터예요. 딱 그만큼의 관객만 볼 수 있죠. 아마도 80~9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쉬워하는 관객이 많겠습니까.

80~90명 들어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 이번엔 공연한 〈혁명의 춤〉도 무대 때문에 관객이 한 번에 8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객석 숫자가 적은 걸 사람들이 아니니까 금방 매진이 돼요, 하하하. 이번에도 매진되면

내년에 또 초청해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아주 〈혁명의 춤〉과 〈겹괴기담〉을 시리즈로 딱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봐요, 하하.

줄거리를 따르지 않고 과편적으로 제시되는 형식이 요즘 유행인 숏폼 short-form 콘텐츠 같아서 젊은 세대가 익숙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MZ세대가 영상을 즐긴다고 할 때 그 영상이라는 건 결국 그림자예요. 화면에 뜨는 영상이죠. 하지만 이 연극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움직이는 게 그대로 영상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 이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번 〈혁명의 춤〉에 대해서도 영화와 영상 창작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실험적인 연극이 오히려 가장 첨단 매체와 통하는 거군요. 나는 지금 연극의 최대 적은 연극인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연극을 자기들이 하던 그대로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악당이 죽으면 ‘아, 그놈 잘 죽었다’ 만족하는 데 그쳐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꾸며나가는 조직과 구조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춤〉도 연극과 거리가 먼 사람들, 기존 연극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충격적이다’, ‘재미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 의미의 연극보다 다원예술에 더 가까운 느낌도 듭니다. 이야기라는 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더 질실하고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연극이 필요하죠. 그냥 줄거리뿐인 평면적인 걸 원한다면 연극을 볼 필요가 없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왜 내러티브 외의 다른 물리적 요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1960~70년대 미국에서 저항적 청년문화와 함께 태동한 실험연극이 지금 한국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도 기묘한 일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실험연극을 했던 우리는 브로드웨이의 기업적 기성 연극으로는 변화하는 현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브로드웨이 연극 하나도 안 봤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다가난hani까 못 본 것도 있지만, 하하.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질적으로 반복되는 뻘한 이야기의 상업적 기성 연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30대 들어 연극 공부를 시작하셨죠. 내가 미국에 연극 공부하러 간 게 1969년이예요. 30대 중반이었죠. 보통은 10, 20대에 연극을 시작해요. 스스로 물어봐요. ‘만약 내가 30대 중반에 미국에서 연극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서 연극을 했다면 실험연극에 심취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 연극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고 갔는데 연극 배경은 전혀 없고, 객석에서 보는 관객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때 뉴욕대학교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죠. 교수들도 실험극 권위자였고, 실험극을 하는 동료들과 어울려 연기도 하면서 그 안에 녹어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

50년 전 실험연극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제 ‘실험’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 그 시기 뉴욕에서 새롭게 시도했을 때 ‘실험’이었던 거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김우욱이 들여다봤을 때, 이 실험은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연극에 필요한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연극들 속에서, 뭔가 다른 틀의 연극이 아직은 생명력이 있더라,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생명력은 생각보다 더 강하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바꾸기보다 지키고 싶고, 평가받기보다 평가하고 싶어지는 것 아닐까요. 왜 여전히 실험연극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없지 뭐. (하늘을 가리키며) 저 위에도 대고 물어봐야지. ‘왜 그런 거예요?’ 하하하.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늘에서 푹 떨어진 게 아니예요. 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겁니다. 나는 정말 보고 싶어요. 젊은 연극인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연극판을 확 뒤집어 놓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전영기



예술교육정책팀 승희조

# 잔잔하고도 확실한 나의 행복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승희조입니다. 학부에서 법을 전공했고, 지금은 문화예술경영 석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2020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시작해 현재 예술교육정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도구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은 작품과 예술가의 삶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감정과 생각을 전이하고 공명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믿거든요. 예술에 공감한다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는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타인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감각을 갖게 되고, 이러한 공감이 긍정적인 파급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술교육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예술교육에 유독 애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예술교육의 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학부 마지막 학기에 성북문화재단에서 학점 교류 인턴십을 하면서 '예술교육'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법을 전공해서인지 행정·정책 용어가 낯설지 않았죠. 무엇보다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작업을 탐구하는 과정이 제겐 행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가지를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꿈꾸던 예술교육 현장에 안착하셨네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민예술학교 사업을 맡고 있고요. 이사업의 시작은 2008년, 노년기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진행된 '꿈꾸는청춘예술대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2015년부터는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예술대학'이 운영됐고, 2022년에는 '서울예술학교,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동시대 예술가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죠.



올해 '서울시민예술학교'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을 배워볼 수 있다는 의도를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이 예술가를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겉보기에는 사업명 정도 바뀌면서 이어진 것 같지만, 올해는 사업 기획과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하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많아졌답니다. 시민들이 경험하게 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는 각 센터에서 진행하고, 저는 여러 센터의 사업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홍보하고 구조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서울예술교육센터 외에 앞으로 서울시 세 개 권역에 추가로 개소할 권역별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 대부분이 처음 하는 것이라 버겁기도 하지만, '예술교육의 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제바람이 결국 이곳에 닿은 것 같아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솟아나네요.

서울시민예술학교와 일반적인 문화예술 클래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민예술학교에서는 예술을 더 잘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리지만, 예술이 생소한 누구나 '저건 뭐지?' 하고 편하게 다가와 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의 맛을 봐야 즐거움을 기대하게 되고, 즐거운 경험이 쌓여야 계속해서 예술을 가까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요. 실제로 참여자를 보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마니아분들이 많아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생활예술 프로그램이나 자치구 문화재단의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는 열정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시민예술학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낯선 예술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감상형'과 궁금한 예술을 좀 더 맛볼 수 있는 '체험형', 그리고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창작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시존별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어린이들과 만났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던 때에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 근무했는데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300명 넘는 아이들과 택배로 창작 과정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로 오랫동안 연락해온 팬픽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죠. 작업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사연을 보내온 아이들 대부분이 센터에 찾아왔어요. 한눈에 자신이 보낸 결과물을 찾아내는 게 무척 신기했죠. 그 외에도 귀엽고 놀라운 경험이 많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여러 사람의 니즈를 모두 연결해야 하는 일이지요.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할 땐 가장 먼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파악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 혹은 제가 속한 그룹의 위치를 돌아보고, 지금 이 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죠. 재단의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사업 아이디어 역시 사람에게서 얻는 경우가 많고요. 타인의 삶을

들어다보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서, 다양한 영역의 사람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나아가 예술교육은 우리 삶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팀 안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웃음) 개인적인 경험과 관심사에 따르면, 예술교육은 지나쳐버린 가치를 찾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보다 즐겁다며 엄마에게 내년에도 여기에 오자던 아이의 후기, 6개월간 만난 아이들이 마지막 발표를 끝내고 아쉬움에 펄펄 울던 모습, 가장 말쑥꾸러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누구보다 진지하게 동생들을 진두지휘하던 모습 등 예술교육이 우리 삶에 주는 잔잔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관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해요. 단정지으려 하기보다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평가받지 않는 '예술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참여자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고요. 듣기보다 말하기가 우선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예술교육은 더욱더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최근 관심을 두는 주제가 있나요.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주제를 올해 내내 생각하고 있어요. 심오한 게 아니라, (웃음) 내 삶을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의 일상에 영감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철 안에서 바라보는 한강이요. 1호선 용산역을 지나면서, 2호선 당산역 근처에서, 4호선 동작역을 건널 때 각각 다른 하늘을 만나요. 갑갑한 도심이지만 한강을 지날 때면 하늘이 드넓게 펼쳐지잖아요. 짧지만 낭만을 발견하기도 하고,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곤 해요.







갤럭시아넥스트 × 서울문화재단

# 예술지원, 무대 너머 디지털 세계로

서울문화재단은 급변하는 미래예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이 NFT(대체 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라는 새로운 디지털 예술 환경에 진입하도록 돕는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이와 관련해 국내 대표 NFT 플랫폼 중 하나인 ‘메타갤럭시아(MetaGalaxia)’를 운영하는 갤럭시아넥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인의 NFT 작품 제작부터 발행과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단과 기업의 협력으로 미래 예술지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 디지털 감성문화도시의 예술

서울문화재단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사업은 서울시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정책 방향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증가, NFT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미래예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단의 혁신과제 중 하나로 기획됐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NFT 등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기초예술인, 그중 특히 장르 특성상 NFT 플랫폼 진입이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을 중심으로 NFT 작품 제작부터 발행, 유통 전반을 지원한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인이 본인의 예술적 정체성을 담아 제작한 디지털 아트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NFT로 발행하면, 이를 온라인 NFT 플랫폼에 등록해 유통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예술인에게 배분하게 된다. 이렇듯 예술가의 디지털 예술 환경 진입과 자생력 확보를 돕기 위해서 선행할 것은 재단과 전문 기업의

협력이었다.

재단은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 국내 주요 NFT 플랫폼 운영 기업을 사전 조사하고,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단이 기획한 사업에 관한 제휴 의사를 타진했다. 그 결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차원에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 의사를 밝힌 갤럭시아넥스트 및 메타갤럭시아 플랫폼과 제휴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타갤럭시아는 특히 기존 NFT 거래 수단인 가상화폐 외에 원화 거래 역시 활발한 플랫폼이다. 그렇기에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예술인 NFT 작품을 구매하고 소장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 후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점으로 꼽힌다. 이에 미래예술 지원 체계 다각화 차원에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재단의 사업 취지와 부합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참여 예술인

심의·선정부터 NFT를 위한 디지털 아트 작품 제작 지원까지, 지원 시스템 총괄 운영을 맡는다. 갤럭시아넥스트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예술인의 디지털 작품을 블록체인화해 NFT로 발행하고, 메타갤럭시아 플랫폼을 통해 유통한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NFT 작품의 유통 수익 전액은 참여 예술인에게 돌아간다.

## 기관이 추진하고, 시민이 지원하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2022년에는 연극배우 박정자·남명렬, 현대무용가 차진엽,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 피아니스트 박종훈 등 국내 대표 공연예술인 30명을 선정해 NFT 작품 제작과 발행을 지원했다. 그리고 메타갤럭시아 플랫폼과 서울문화재단의 자체 NFT 플랫폼, 오프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NFT를 공개했다.

공공 부문에서 국내 공연예술인의 NFT 생태계 진입을 지원한 첫 사례로 일반에 선보인 NFT 작품은 120건 넘는 언론 보도와 온라인 채널(메타갤럭시아, 소셜미디어 등)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문화예술계와 시민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3천만 원 넘는 판매 수익은 참여 예술인에게 재분배돼 기존의 공격 지원 중심 예술지원 체계에서 한발 나아간,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예술지원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2년 차를 맞은 2023년,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 지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한편, 제휴 기업인 갤럭시아넥스트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NFT 작품에 대한 유통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참여 예술인의 부가 수익 창출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NFT 작품 유통 단계에서 판매가를 낮춰 시민의 NFT 작품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NFT 작품 이미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이 완료된 2023년 대상 예술인은 총 33명이다. 무용 분야에서는 현대무용가 김설진·김성용, 발레리나 박슬기, 한국무용가 국수호 등 9명,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명창 강권순, 소리꾼 이희문·김준수·유태평양 등 8명, 연극 분야에서는 배우 주호성·박지일, 연출가 김아라 등 9명, 음악 분야에서는 테너 김민석, 지휘자 진술, 첼리스트 양성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르와 연령을 불문한 국내 대표 공연예술인의 면면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올해 사업 참여 예술인들이 제작한 NFT 작품은 오는 12월, 메타갤럭시아와 서울문화재단 자체 NF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하는 별도의 기획 전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다.



# 다양한 경험의 만남, 장애예술 기획전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작업과 기획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가 오리엔테이션 때 전달한 말이다. 전시를 위해 큐레이터와 담당자가 전시를 기획·실행·포장하는 일을 한다면, 그 알맹이(원재료)가 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작업에 관해 고민하고, 글로 정리해보고, 이를 비평가 앞에서 발표하며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정리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전시실에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작가노트와 비평집이 비치됐으면 했다.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목표를 향했다. 한 작가가 말한다. “작가노트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문가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됐고,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신 있게 공개 크리틱을 할 수 있었어요.”

**장애예술 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 지원



플랫폼이다. 지난 16년간 다수의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며 장애예술 분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효성그룹이 후원하는 입주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의 결과 전시가 올해 10월,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장애예술 기획전시 《내가 사는 너의 세계>Your World I Live In》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의 서로 다른 인식의 체계를 바라보며 ‘나’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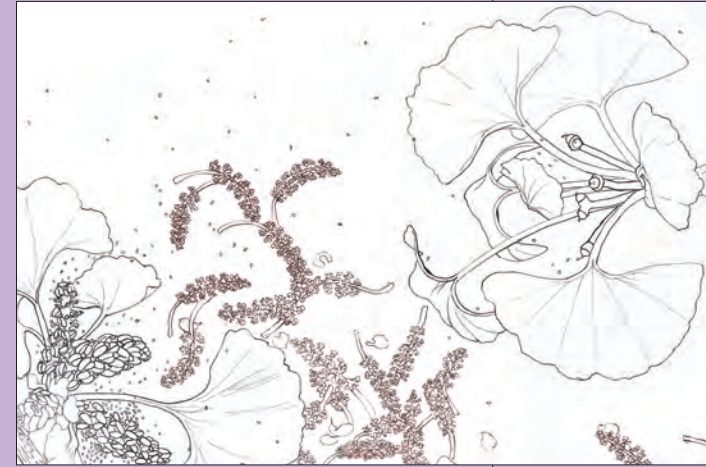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양성’이다. 올해의 입주작가 6팀의 장르는 판화·구축화·회화·미디어·사진·오브제 등 전부 다르다. 기존의 장애예술 전시가 평면 회화 작품 위주로 진행됐다면, 올해는 다양하고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모든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배리어프리를 구현한다. 배우 안효섭과 함께하는 오디오가이드, 음성

- 송상원 <숲속의 작은 친구들>
- ← 유다영 <Braille Image No. 1>
- ↓ 최서은 <한가로운 오후>



센서, 출력물 점자 및 큰 글자 적용, 수어가이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시 설명 가이드(쉬운 정보), 바닥의 점자 블록 등을 구성해 배리어프리 특화 전시를 준비했다.

내용 면에서는 작가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경린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소개한다. “전시의 제목인 ‘내가 사는 너의 세계’는 미국의 사회 운동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Helen Keller의 저서 『내가 사는 세계』The World I Live In, 1908에서 영감을 받았다. 저서에서는 본인이 살아가는 세계 그 자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 책 속에서 자신만이 느끼는 특별한 경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하는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 우리가 함께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들여다본다.”



**여섯 작가의 세계 들여다보기**  
때때로 정리되지 않은 단어를 나열한 것 같은 글이나 메모 같은 글도 있지만, 작가노트는 작품의 시작점을 직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에 대한 소개와 작가노트 한 줄을 함께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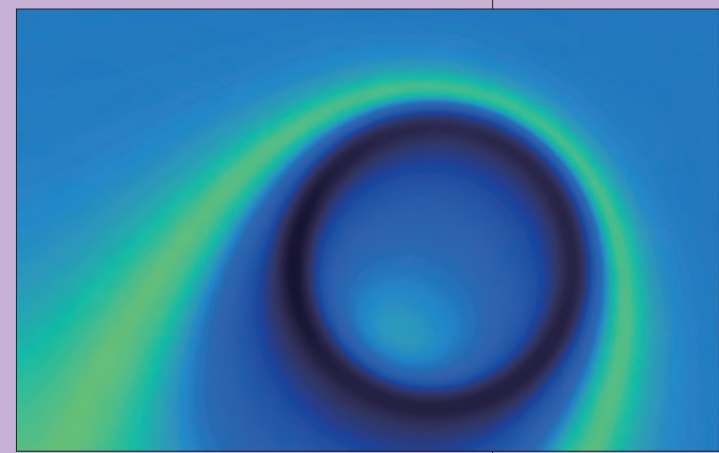
김진주는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식물의 생태 변화를 그린 구축화를 선보인다. 식물의 정보와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단어들과 함께 세밀하게 묘사된 작품은 작가와 식물이 교감한 결과물이다. 작가의 세밀한 관찰 드로잉을 통해 식물의 세계에 관람객을 초대한다.

“식물의 생태, 삶의 방식 등을 알게 되면서 관심이 갔다. 한 나무를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고 변화 과정을 모두 기록한다.”(김진주의 작가노트 발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오른손이 마비된 Q레이터의 일상 속 경험에서부터 라움콘의 작업이 시작된다.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갑과 숟가락 등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구들을 재창조한 오브제를 전시실에서 관람객이 직접 사용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한 몸이 아닌 다양한 몸으로서 유연하게 변화된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상의 실험”(라움콘의 작가노트 발췌)

박유석은 어린 시절 태양을 보고 난 뒤, 눈을 감아도 남아 있는 잔상에서 따스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작가는 이 잔상을 미디어, 빛, 소리를 활용해 전시실에 공감각적으로 풀어낸다. 관람객과 태양을 보는 놀이를 공유한다.

“복잡한 세상에서 나의 작업을 보는 이가 세상과 잠시 떨어져 홀로 남기를 원한다. 잠시나마



- ↑ 라움콘 <한 손 두 손가락 포크>
- ↖ 김진주 <꽃과 그들의 수정>
- ← 박유석 <Trace>

스스로 마주하고 자신이 찾은 안도감 속에서 세상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박유석의 작가노트 발췌)  
송상원은 자연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작은 존재들을 확대해 조명한다. 뿌리나 작은 풀벌레 등을 소재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작가의 상상 속 또 다른 자연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가졌음에도 시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서도 방법이 서툴러 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나의 모습과 같아 보였다.”(송상원의 작가노트 발췌)

작품 속에 사진·글·점자를 함께 활용한 유다영은 사진을 시각이 아닌,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세 가지의 내용(사진·글·점자)은 뚜렷하게 연동되지 않아 관람객에게 작가의 감정 기록에 대한 비밀을 푸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 공간에 떠다니는 사진 이미지는 너무 많이 생산되고 삭제되고 있을 것 같다. 사진이 너무 쉽게 읽히거나 그 반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았다.”(유다영의 작가노트 발췌)  
작가가 꿈꾸는 가상의 정원을 목판화로 선보이는 최서은은 동식물에게도 마음의 모양이 있다고 상상해 이를 패턴화한다. 패턴을 위한 선이나 동식물의 묘사를 위한 선들은 조각도로 파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해 더욱 생동감 있는 가상의 정원을 선보인다.

“판각 작업을 하면 다른 판보다 나무 판이 더 친근감 있고, 사각사각 소리가 날 때마다 나무와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최서은의 작가노트 발췌)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만나 준비한 기획전시 《내가 사는 너의 세계》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여섯 명의 다양한 인식의 체계를 바라보며 ‘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장애예술 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 서울 예술인을 위한 플랫폼,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인플랜을 근거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광역문화재단 최초로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10월 11일 개관한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서울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예술인플랜2.0) 등 예술인 사회안전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발맞추면서도, 기존의 예술청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한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수립해 예술지원 대상을 확장했으며, 올해는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서울형 예술인 통합지원체계'를 시작으로 대학로 예술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인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문을 연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등 총체적인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 플랫폼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창작 및 생활 영역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컨설팅, 개별·그룹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예술인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및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예술가의 생활 기반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그 밖에도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경력 단계별 예술지원 정보,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Re:Stage Seoul(리스테이지 서울) 이용 안내 등 예술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인스타그램(@sap\_artis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예술인 전용 공간 운영**  
예술인이 다양한 창작 및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 예술인 전용 대관 공간인 프로젝트룸·아고라·미팅룸 운영
- 2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안내**  
경력 단계별 창작활동지원, 예술기반지원, 특성화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3 예술인 법률 상담 운영**  
문화예술 관련 변호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가 예술 창작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지식재산권, 근로 및 노무, 세무·회계 등에 관한 다양하고 세분된 법률 컨설팅 제공
- 4 예술인 심리 상담 운영**  
예술 창작 과정의 심리·정신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가와 개별 상담 지원
- 5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술인의 자생력과 작업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술인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장르별 전문가와의 만남, 장르·주제별 특강 진행
- 6 예술인 생활 기반 지원사업 운영**  
예술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반 지원사업 진행, 현장과 밀접한 전문가와 협업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
- 7 공연 무대용품 공동 이용 플랫폼 'Re:Stage Seoul' 안내**  
공연이나 연습 과정에서 필요한 의상과 소품을 대여하는 등 공연 물품을 공유하고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 이용 플랫폼



**노이오페라코러스**

**SINCE**

2019년 8월

**ABOUT**

이탈리아어로 '우리Noi'라는 뜻을 품은 노이오페라코러스는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 공연, 합창을 지향하며 '우리는 하나되어 기쁨과 희망의 음악을 전한다'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오페라 전문 합창단이지만 영화음악·필름콘서트 등 다채로운 장르에서 활동하며 관객과 만나고 있다.

**MAJOR WORK**

국립오페라단 <삼손과 데릴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맥베스>, <레드슈즈>,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 창작오페라 <길 위의 천국> 등

**MEMBER**

박용규(단장 겸 합창지휘), 최요한(음악코치), 이상철(총무) 외

**IN 2023**

10월 21일과 22일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무대에 오르며, 26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노르마>를 공연한다. 11월 23일과 24일에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창작오페라 <붉은 자화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발레에스티피 협동조합**

**SINCE**

2013년 11월

**ABOUT**

발레계 발전과 발레 대중화를 위해 유니버설발레단·서울발레시어터·이원국발레단·SEO발레단·와이즈발레단·김옥련발레단·정형일발레크리에이티브 등 국내 7개 민간 발레단이 결성했다. 서로 협력하며 다양한 발레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해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향한다.

**MAJOR WORK**

경기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인정받은 수원발레축제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MEMBER**

김인희(이사장), 김길용(와이즈발레단장, 이하 이사) 최진수(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이원국(이원국발레단장, 이하 이사), 서미숙(SEO발레단장), 문훈숙(유니버설발레단장), 김옥련(김옥련발레단장), 정형일(정형일발레크리에이티브 단장), 홍성욱(와이즈발레단 예술감독, 감사)

**IN 2023**

9월 8일과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젤>을 공연했고, 10월 14일과 15일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로 관객과 만난다.





# 우리 시대가 폭력적인 지휘자를 대하는 법

최근 영화 <타르TAR>가 넷플릭스에 서비스되며 다시 화두에 올랐다. 영화는 독재적인 지휘자를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계의 이면을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오케스트라 내 노동 착취와 지휘자 입맛에 맞는 부당한 임용, 권위를 이용한 성적 접근... 심지어 그는 다른 음악가를 폭행하기까지 한다. 폭행이라니, 과장일까? <타르>가 국내 OTT에 서비스를 시작한 8월 말쯤, 공교롭게도 유럽에선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영국의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Sir John Eliot Gardiner가 함께 공연한 음악가를 폭행한 것이다.

현재 80세인 가디너는 그동안 고압적인 언행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뛰어난 음악으로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온 지휘자다. 현재 영국 고음악계의 기반은 그가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964년 지휘 경력을 시작한 뒤 세 개의 악단을 창단하고, 수많은 음반을 냈으며 그에 견주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국가 행사의 연주를 맡거나 음악서를 출간하는 등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름에 붙은 기사 작위Sir가 그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든 명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평가되고 있다.

### 사건의 전말을 짚자면...

8월 22일 프랑스 베를리오즈 페스티벌에 오른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Les Troyens> 공연이 끝난 뒤였다. 공연 중 베이스 윌리엄 토머스William Thomas가 잘못된 방향으로 퇴장한 것을 두고, 출연진 앞에서 그를 질책하던 가디너가 급기야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다음날 영국 웹사이트 '슬립디스크Slippedisc'는 이 내용을 폭로했고, 가디너의 대변인은 "가디너가 프랑스의 극심한 더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최근 약을 바꿨는데, 그것이 지금의 후회하는 행동을 촉발했는지도 모른다"고 반응했다.



24일, 토머스의 소속사는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모든 음악가는 학대나 신체적 위협이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연습할 권리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날 가디너도 사과문을 냈다. "(...) 저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토머스에게도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해 다른 아티스트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신체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음악가는 항상 안전하다고 느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가디너는 2024년까지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다. 소속사는 "가디너는 당분간 지속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맞춤 치료를 받는 몇 달간 그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 가디너의 폭력적인 언행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 화제가 됐을 뿐,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다. 2015년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존 엘리엇 가디너의 무례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가 음악가들에게 행한 여러 이야기를 모았고, 이에 가디너의 측근은 그가 "자존심이 높지만 괴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3년 영화 <타르> 리뷰 기사에도 공포스러운 가디너의 모습은 종종 언급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정작 음악계는 잠잠하다. 영국의 음악 평론가이자 '슬립디스크' 운영자인 노먼 레브레히트Norman Lebrecht는 여러 추측을 남겼다. 많은 연주자가 가디너에게 인생의 시작을 빚지고 있어 그가 무엇을 하든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나, 기존 클래식 음악계와 다른 가디너만의 캐스팅 때문에 음악가들이 향후 그와 쌓을지도 모르는 커리어를 생각한다는 것, 무엇보다 가디너만큼 오랜 기간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더 많은 음악가를 위해 더 많은 창작 작품을 장려하고 무대에 올린 지휘자가 없다는 것 등이다. 무성한 소문을 뒤로 하고, 업계는 그가 지속 기간을 거친 뒤 돌아올 것으로 점친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그가 돌아오더라도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란 사실이다. 수많은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

###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백 명이 넘는 단원을 데리고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지휘자의 특성상 이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필수다. 오케스트라 위에 '군림'하는 능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도 분명히 있었다. '더 스펙테이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휘자가 신이었을 때, 연주는 신의 계시였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기계처럼 정밀하게 훈련된 농노"일 정도로. 20세기의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의 리허설은 전장이나 다름없었다고 전해진다. 1930~1940년대 리허설 녹음에는 고탐과 욕설, 주먹을 내리치는 소리가 함께 녹음됐다. 연주자에게 지휘봉을 던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 카네기홀에서 자신의 악단을 지휘하는 존 엘리엇 가디너 ©Chris Lee/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Siegfried Lauterwasser/DG



↑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 ©Eilfriede Hanak/DG

카라얀Herbert von Karajan도 말년에 독재자로 불렸다. 리허설 중에 실수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기도 했고, 연주자의 외모에 대해서도 까다로웠다. 연주를 촬영해야 하는 경우 민머리 음악가에게 가발을 씌우거나, 협연자였던 플루티스트 제임스 골웨이James Galway의 수염이 싫다는 이유로 화면용 대체 연주자를 세우기까지 했다. 로열 오페라와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하는 등 시대를 풍미한 헝가리 출생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Sir Georg Solti는 생전 '비명 지르는 해골'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이 외에도 지난 세기의 폭력적인 이야기는 셀 수 없다. 단지 문혔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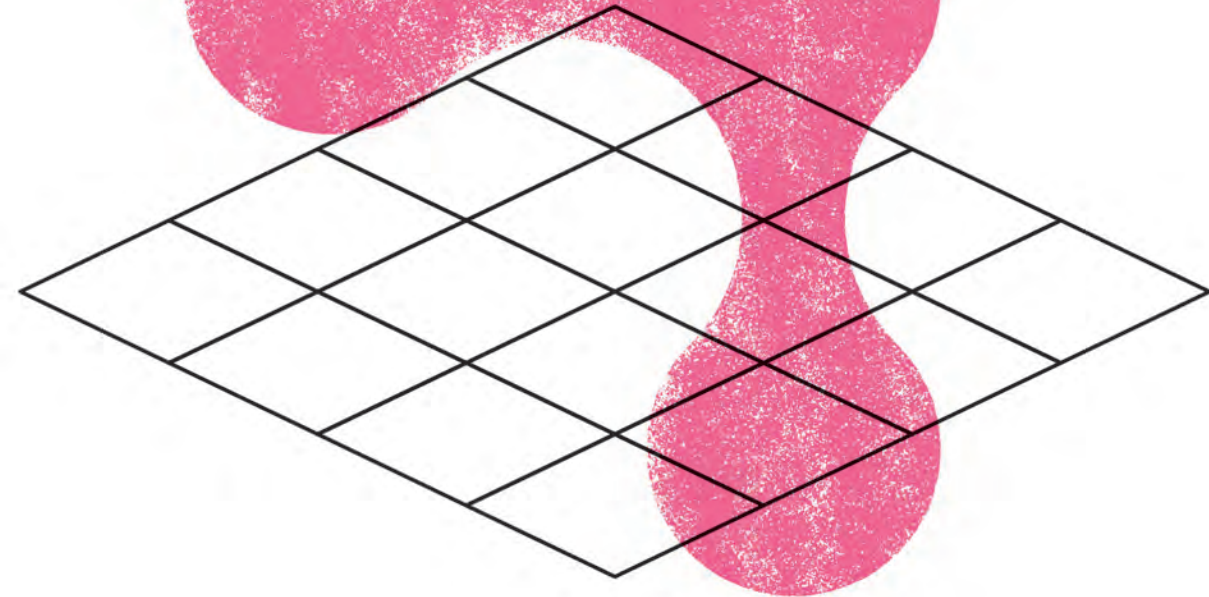
시대가 바뀌었다. 전체주의가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전체주의적 사상으로 지휘하던 이들의 방식을, 평등을 누리며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자란 세대에 납득시킬 수 없다. 지금 정치계에 독재자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클래식 음악계도 같다. 가디너에게 폭행당한 젊은 베이스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면 인성은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마인드는 다분히 구시대적이다. 당신은 지휘자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알고도 그의 음악을 고결하게만 들을 수 있는가? 영화 <타르>가 공감을 사는 이유는, 쉽사리 몰락시키지 못한 실제 인물들과 달리 결국 타르는 몰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이 글은 폭력에 대해서만 다루었지 성폭력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Re: stage seoul

공연 무대용품 공동이용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Re:Stage Seoul(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물품의 재사용을 위한  
공익 목적의 플랫폼입니다. 공연에 필요한 의상과 소품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기간이며, 12월 중 정식 홈페이지 오픈 이후 위탁 등 서비스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문의 02-758-2163 | restage@sfac.or.kr | restageseoul.or.kr



# Column

삶의 책장을 넘기며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걸리는 시간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나의 지난날, 우리의 지난날

동시대적 고전 읽기

다시 쓰는 자만이 할수 있는 말

일상 결의 공예

벽에 걸린 현대공예

illust @slowrecipe



##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걸리는 시간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피터팬컴플렉스PPCX가 부른 이 곡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긴 제목이 유행하기 훨씬 전인 2003년에 나온 곡을 20년이 지난 지금 정용준 작가의 『저스트 키딩』(마음산책)을 읽으며 떠올릴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참 농담 같다. 저마다에겐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있다. 즉석에서 와하하 함께 웃고 털어낼 수 있는 농담이 있고, 매우 화내며 상대방과 절연 후 시간이 흐른 뒤에 농담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으며, 어떤 농담에 숨어 있는 진심을 보며 낭패감을 느껴본 적 있을 것이고, 농담으로 받아들여선 안 됐던 일들도 있다.

『저스트 키딩』은 그런 면에서 아주 거대한 농담집이다. 농담한다는 건 인간을, 삶을, 앞에서 있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잘 알지 못 하고 건네는 농담은 무례함만 남긴 채 흠어지거나 돌연 깊은 상처로 남는다. 그렇기에 농담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용준 작가라면 믿고 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바벨』2014(문학과지성사), 『선릉 산책』2021(문학동네),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아』2020(민음사), 『소설 만세』2022(민음사) 등으로 인간을 깊이 바라본 그가 이번에는 마음산책에서 짧은 소설 시리즈로 열세 편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소설들은 죄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 저런 식으로 끝이 났다. 낙서에서 이야기로. 일기에서 편지로. 고백에서 함성으로. 그림에서 문장으로. 산책에서 여행으로 비명에서 음악으로. 혼잣말에서 귓속말로. 새벽에서 아침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8쪽

몇 작품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이들로 둔 세신사신 씨의 이야기 「돌멩이」,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펜션에 생을 마감하러 갔다가 누군가를 마주한 「브라운 펜션」, 비루한 과거를 팔아 영원히 밝은 꿈을 샀지만 무르고자 그 판매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너무 아름다운 날」, 어머니를 찾으려 간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톨게이트 징수원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바다」, 밤길을 걷는 여성을 뒤따라간 다음 반응을 실컷 영상으로 따고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몰카 유튜버를 직접 찾아간 누군가의 이야기인 표제작 「저스트 키딩」까지. 농담은 힘이 제법 강해서 그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닐 때가 더 많다.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게 전하고 싶어서 취하는 방식이 농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농담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웃음기를 거두고 여느 때보다 귀를 크게 열어 그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들은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다가 웃을 벗었다.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잊을 수만 있다면 맹장처럼 잘라낼 수만 있다면 배를 가르고 머리를 갈라 이 기억을 없앴을 것이다. 멍으로 가득한 울긋불긋한 몸. 그동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의 몸을 구석구석 보고 살았는데 정작 이들의 몸을 보지 않았다. →28쪽, 「돌멩이」

그리워지더군요. 슬프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아팠던 날들이. 어둠과 두려움. 실패와 실망.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번만 더 맛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기 시작했죠. →48쪽, 「너무 아름다운 날」

“(…) 그런데 끝까지 모르겠는 건…… 이유였어. 도대체 그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알았어. 이유가 없다는 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 김민수 씨. 당신은 아직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인 죄,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한 죄.” →109쪽, 「저스트 키딩」

작가의 이번 단편들은 환상과 현실, 망상을 부지런히 오가기에 나의 감상 또한 잠시 헛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겹겹의 농담을 들춰 첫 번째 겹에 다다랐을 때, 그곳엔 손에 잡히는 우리들의 오늘이 있었다. 학교폭력, 가족의 죽음, 무명의 뮤지션, 소셜미디어 중독, 이상동기 범죄, 불잡을 수 없던 이별, 근무 중 낮잠 같은 휴식,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 냉정한 현실에 뿌리를 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럴 만도 하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도, 내 친구도 겪었던 일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각각의 작품에서 불완전한 이들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불완전함을 감싼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그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이것은 작품 속 주인공끼리가 아닌, 정용준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서로에게 응원을 건네는 방식이기도 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럴 만해요. 기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154쪽, 「두 남자」

‘꾸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꿈을 꾸다’와 ‘남에게 무언가를 빌리다’. 이 책을 이제 와 한 줄로 소개해 보자면 ‘농담이 곧 인생’이라 말하고 싶다. 농담이 꿈꾸어본 인생이자 인생에서 꾸어온 어떤

것들로 농담을 한 농담집. 삶의 희로애락은 때론 너무 잔인하도록 구체적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선명히 감각하게 한다. 그의 농담은 이걸 분명히 느끼게 해주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쁨, 슬픔, 절망, 좌절, 사랑, 분노, 수용이 흘러넘쳤다. 앞서 말한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꿈의 에덴동산도 매일 맑은 날만 계속

되어진다면 사막이 되어버리겠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에덴동산을 찾아 떠난 책 속에서 나는 에덴동산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온 마음 다해 치열하게 느낄 것들이 많이 남았음을 어렵פות이 깨달았다. 그가 건넨 농담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당신 몫이다. 이 선택까지가 그가 계산한 농담의 크기 같다.

## 나의 지난날, 우리의 지난날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후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는, 자꾸만 후회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정말이지 자주 후회한다.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시험 전날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할 걸, 어제 만난 그 사람에게 그 말은 뭐 하러 했지… 평범한 수준이라면 크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다. 후회되는 순간이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문제는 첫째, 얼마나 오래된 일까지 후회하는가, 둘째, 얼마나 사소한 일까지 후회하는가, 하는 거다.

대학교 2학년 때 귀여운 여자 후배가 우리 과에 들어왔다. 그 친구는 눈에 띄는 만한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선배가 되어 후배를 만나는 자리가 어색했던 나는 “혹시 성형수술을 고려해본 적은 없어요?”라는 덜떨어진 질문을 하고 말았다. “네, 저는 제 얼굴이 좋아요.” 하고

웃던 그 친구의 해맑은 얼굴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술만 마시면 그 일을 굳이 꺼내 미안하다고 수십 번 말한 일까지 포함해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한심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계속 후회하려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발주머니를 신나게 흔들며 등교하던 나는 먼저 도착해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발견했다. 장난이랍시고 신발주머니로 엉덩이를 살짝 쳤는데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친구가 앞으로 수그러질 만큼 세계 타격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내가 아는 친구가 아니라 뒷모습이 비슷한 모르는 아이였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고 그대로 교실로 도망치고 말았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걸 이십몇 년째 후회하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미안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일 말고도 ‘아, 한 달 전 모임에서 내가 했던 농담에 이 말까지 덧붙였다면 더 완벽했을 텐데’ 유형도 있다. 무슨 코미디언도 아닌데.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토론에서 ‘아, 그때 이 논리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유형도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사로운 지난날을 오래도록 떠올리는 걸까. 정말 피로하다.

그렇다고 기억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저 더 나은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 순간에 한정하여 두고두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책하는 일이 많다. 아주 어렸으니 그럴 수



있다면 덮어둘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잊을 법도 한데 나의 기억 안에서 '과거의 나'는 자꾸만 덜덜어진, 부족한 인간으로 다운그레이드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동창회 같은 것을 질색한다.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미성숙했던 내 과거를 아는 누군가를 마주치면 순간 도망갈 공리를 한다. 대부분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유재하의 〈지난날〉1987을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 어쩌면 작사가인 그가 나와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하면 뭘 해 /  
잘했었던 못했었던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작사가는 이미 어느 지난날을 떠올렸고, 그것이 언제 어디 누구의 탓인지 혼자 따져보았다. 그렇기에 '그럼 뭘 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 좀 더 아름답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말한다. 좋았던 일들도 떠올려 봐, 행복해질 수도 있어, 하는 담백한 자기 위로.

다시 못 올 지난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벼린  
지난날

후렴구에서 확실해진다. '-하리'라는 어미는 다짐이다. 난 나의 지난날을 꾸밈없이 간직하겠다는 다짐.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영원만큼이나 오래. 앞서 했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편안해져 보자는 자기 주문. 유재하라는 인물과 같은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내가 듣는 〈지난날〉은 이러한 이야기다.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 하루하루 더욱 새로우게 그대와  
나의 지난날

내가 자주 하는 후회 행위들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다. 예컨대 고3 때 내가 공부를 못해서 재수한 일은 별로 후회되지 않는다. 야식으로 매운 음식을 먹어 얼굴이 붓고 배가 아픈 날들은 그다지 오래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후회를 만든다. 아주 작은 상처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가 나를 조금이라도 나의 사람으로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 그러니 내가 떠올려야 할 아름다운 지난날은 그저 '나의 지난날'이 아닌 '그대와 나의 지난날'이다.

대중음악인들이 'D 브리지'라고 부르는 곡의 후반부 하이лай트의 가사는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이다. '브리지'라는 말처럼 연결구 역할을 하며,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환기하는 기능을 해서인지 나를 포함한 여러 작사가가 가장 솔직한 마음을 이 대목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사가도 있으며, 유재하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옛일만 떠올리며 헛되이 지내는 듯 보이겠지만—나도 인정하는 바이지만—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싫다는 선언(고음으로 부르기예)처럼 들린다. 지난 일은 뒤로한 채 앞으로만 간다고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약간의 투덜댐도 포함한다.

이 음악을 만들고 부른 유재하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 시대를 겪지 않은 후대의 감상자는 이 노래 속 경쾌함과 따뜻함만으로 그저 행복해진다.

## 다시 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전영지 공연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복수復讐 서사는 부침 없이 유행했다. 최근의 복수극 열풍은 분명 일상화되고 있는 재난과 폭력, 그리고 한없이 무력한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한말을 반영할 터이지만, 서사의 역사에서 복수가 뿌리 깊은 테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복수에 대한 염원은 동시대적인 동시에 고전적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복수 서사의 창작 열풍 속에서 고전적 복수 서사의 귀환을 목격하게 되는 까닭일 터다.

2016년 영국에서 초연한 지니 해리스Zinnie Harris 작 〈이 불안한 집This Restless House〉(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은 바로 복수 서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기원전 458년)을 각색한 작품으로, 동시대적 정동에 응답하여 소환된 고전적 복수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도 그다지 의심하지 않던 복수 서사의 종결 가능성을 질문한다. 정말 그 지난한 복수가 끝났느냐고, 그리하여 당신의 세계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냐고, 당신들은 마침내 안식에 이르렀냐고, 〈이 불안한 집〉은—장장 5시간의 상연 시간 동안—참으로 착실하게 묻는다.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 이야기부터 해 보자. 「아기멤논」, 「제주祭酒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아버지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시작으로, 딸의 죽음에 분노한 어머니가 아버지(와 그의 정부)를, 아버지의 죽음을 되갚기 위해 아들이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하는 이야기다. 한 문장 안에 담았지만, 이 참혹한 복수의 연쇄는 거의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더욱이 이 집안에 드리워진 친족 살해의 저주를 모두 살피려면 훨씬 더 긴 시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토록 지난한 악순환은 마지막 살해자 오레스테스에 대한 신들의 재판으로 중단되는바, 『오레스테이아』는 복수란 본디 저주처럼 이어지고, 기이하게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며, 결코 인간은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는 독해를 촉발한다. 신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집안을 덮친 불안은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지니 해리스는 바로 이 상상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상상을 구현하기 위해 아이스킬로스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를 찌르는 칼을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니라 딸 엘렉트라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고전 서사의

주변부에 있던 여성 인물에게 주목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동시대 각색의 비근한 예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해리스의 설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완전히 새로 쓴 3부에서 여전히 안식에 이르지 못한 엘렉트라가 현대의 정신병동에 감금된 '미친 여자'로 등장하는 것. 즉 원작의 오레스테스가 여느 남성 서사의 주인공들처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 행위를 승인받아 이야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이 불안한 집〉의 엘렉트라는 '미친 여자'가 되어 서사의 종결을 영원토록 유예한다. 이처럼 해리스는 서사의 역사를 산뜻하게 부정하는 대신, 서사의 장구한 역사와 끈질기게 대화하며 생경한 출구를 탐색해 나간다.

주지하다시피, 서사의 역사에서 '미친 여자mad woman'는 유례 깊은 은유다. 가부장제가 허락한 수동적인 조력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미친 여자'로 불렸고, 미쳤다는 이유로 유폐되었다. 재산도, 육체도, 이름도 빼앗긴 채 감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망각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제인 에어』의 버사 메이슨, 아니 앙투아네트처럼 '태양' 같은 여자들은 미친 여자로 낙인찍혀 추방되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샬럿 브론테 다시 읽기를 시작으로 19세기 여성문학을 고찰한 페미니즘 문학 이론서의 고전 『다락방의 미친 여자』1979의 저자 샌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전 구바Susan Gubar 가 40여 년 만에 출판한 후속작의 제목이 『여전히 미쳐 있는』2021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길버트와 구바가 여성 작가들의 광기를 변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듯, 해리스 또한 '미친 여자' 엘렉트라의 참혹한 처지를 연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미친 여자'로 오인되어 유폐되었기에, 서사를 완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머물렀기에, 엘렉트라가 열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좃아간다. ‘미친 여자’와 ‘미친 여자’의 만남이라는 가능성이다.

‘엘렉트라와 그녀의 그림자’라는 부제를 가진 3부에서 엘렉트라는 자신과 꼭 닮은 오드리를 만난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으나 방치한 그녀는 오랜 치료 끝에 정신과 의사가 되었지만, 또다시 죽음의 원혼들에게 쫓기고 있다. 오래도록 부정하려고 애써왔으나 기어코 돌아온 고통 속에서, 결국 오드리는 엘렉트라와 함께 죽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미친 여자’ 이야기에 허락되는 결말은 죽음뿐이었다. 서사의 종결을 현재까지 유예해도 그 과정에서 ‘미친 여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져도 이 결말은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것일까? ‘이야기 세계’의 경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상상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던 것인지, 해리스는 더욱 거침없는 월경越境을 단행한다.

재판이 열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들의 재판이 아니라, ‘자연’이 허락한 재판이다. 신들보다 이 세계에 더 오래 있었고 ‘코러스’라 명명되는 못 인간들이 사라져도 이 세계를 이어갈 ‘자연’, 즉 신과 인간이 시작과 끝이자 전부라고 여기는 ‘이야기’의 세계’를 훌쩍 초월한 존재가 재판을 승인했다. 그 재판의 말미, 첫 번째 희생자 이피지니아가 등장하여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낸다. 그녀의 독백을 한참 듣고서야 깨달았다. 그 긴 세월 정작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음을, 복수라는 돌진하는 서사를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그녀를 애도하지 않았음을. 불현듯 일찍이 아가멤논의 귀환을 알리던 파수꾼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건 정상이 아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행이. 사이가 없잖아.” 그렇다, 문제는 복수가 아니라 복수가 상실을 애도하는 시간을 삭제해버렸다는 점이다. 서둘러 선언된 ‘애도의 종결’이 영원토록 지속된 고통의 시작이었다.

기실 앵거스 플레처Angus Fletcher에 따르면, 복수 서사는 상실의 아픔을 신속하게 바로 잡으려는 시도로 고안되어 점점 더 정교하고 잔혹해졌는데, 바로 그 시작이 『오레스테이아』였다. 하여 해리스가 『오레스테이아』를 다시 씀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문에 부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실에 대처하고 빠르게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500여 년 동안 발전시켜온 이야기 세계의 ‘발명품’들이지 않을까. 복수 서사를 비롯하여, 마땅한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는 죽음들을 양산하며 긴박하게 전개되다 기어코 갈끔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 간결하고 정연한 서사 형식을 지탱하는 수사修辭들 말이다.

## 벽에 걸린 현대 공예

박은영 공예·디자인 애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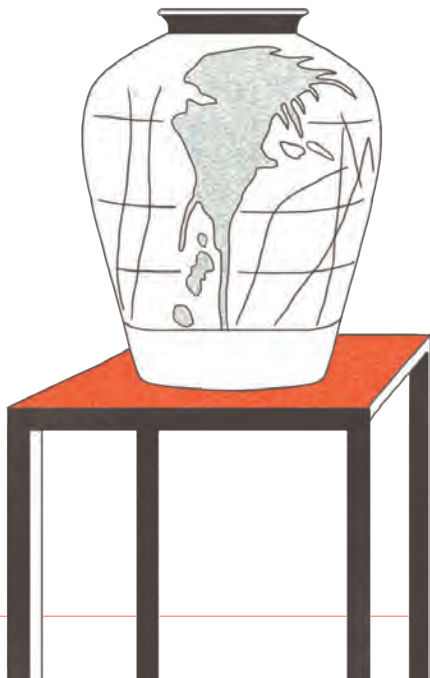
지난해 국제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가 서울을 찾으며 뉴스에는 연일 이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 9월 두 번째로 열린 프리즈 서울에 관한 관심 또한 뜨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프리즈 서울을 찾은 관람객 중 1980~90년대생 MZ세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아트에 관심을 갖는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신진 구매자, 잠재 구매자로 여기고 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한국 MZ세대

5시간의 대장정 끝에 오드리가 말한다.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그걸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두려움으로 상실을 외면하는 대신, 죽음과 죽음이 남긴 상흔들로 가득한 세계로 난 창문을 열어젖혀 죽음들과 대면하고, 그 죽음들에 얽혀 있는 나의 책임을 직시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 죄책감을 안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 그 죄책감을 품을 때야 비로소 이 지난한 이야기와 결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독려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도 그 이후를 이어 쓰겠다고 결심한 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참으로 정직하고 사려 깊은 전언이 아닐 수 없다.

미술품 구매자 연구」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회화는 모두에게서 가장 우선시되는 매체이며, 소장 경험 기간에 따라 초보 구매자는 드로잉이나 공예/디자인을, 그리고 경력이 쌓인 구매자는 조각으로 관심이 확대해 나간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작품에 구매가 집중되는 MZ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순수미술이라 칭하는 회화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드로잉과 공예/디자인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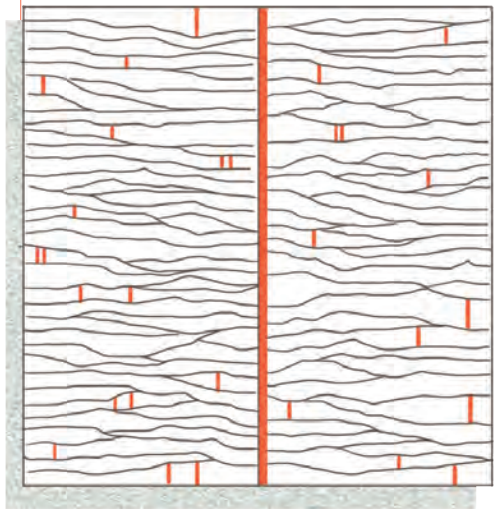
여러 정황을 살펴보며 눈에 띄는 대목은 ‘공예는 왜 순수미술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여겨질까?’, ‘왜 은연중 순수미술보다 공예의 지위가 낮게 평가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예가들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술시장 안에서 순수미술이 누린 지위에 비해 공예의 처지가 불만족스럽다고 말이지요. 그래서인가 전시장의 흰색 좌대, 테이블 위 한편, 선반 한 귀퉁이에 놓이던 공예품이 벽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예·목공예 등이 한 쪽의 그림 같은 장신구가 되어 회화로서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지요. 이는 미술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공예가가 귀땀해줄길, 오브제를 주로 만들던 자신에게 최근 들어 갤러리에서 평면 작업, 액자형 작업, 즉 벽에 걸 수 있는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작업이 기존 오브제 작업보다 시간과 노동력이 덜 들지만 가격은 더 높게 책정되고, 심지어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를



만들던 한 공예가는 자신의 시그니처 형태를 축소해 벽에 거는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두는 공예품은 먼지가 쉽게 쌓이고 어떤 경우에는 공간을 크게 차지하며, 도자나 유리 소재의 경우 깨질 것이 염려되는 등 관리가 까다롭지요. 하지만 벽에 거는 작품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회화 작품을 소유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벽에 거는 공예품’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작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최근 이러한 미술시장의 요구에 편승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벽에 거는 작업’, ‘예술로서의 공예’로 작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같은 재료를 쓰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었지만, 거기에 ‘기능’이 들어가는 순간 공산품 시장, 즉 디자인 시장과 비교당하며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기능이 있는 공산품의 가격과 비교해



스스로 어느 정도의 가격 선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동 값은 낼 수 없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에 반해 순수미술로 넘어가면 자신의 작업이 순수하게 미적 가치로만 평가받으며 가격은 미술시장 안에서의 기준으로 책정되니 시간과 노동력 대비 예술로서의 공예가 작가에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공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예는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물건입니다. 순수미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18세기 무렵부터 미술은 실용성을 떠나 순수한 미의 세계를 탐닉하기 시작했고, 공예는 예술보다는 실용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뛰어난 기술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응용미술로 구분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되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물건이 창조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손으로 일일이 정성을 다해 만드는 공예는 디자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없어 가격 경쟁에서 조금씩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예가 살아남기 위해 찾은 새로운 길이 예술공예이고, 이것이 최근 들어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계의 상황이 가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수요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자본시장의 원리이긴 하나 작가의 신념마저 흔들리는 건 아닌가 하는 괜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요. 그저 공예를 어느 특정 장르와 비교하며 평가하고 값을 매기기보다 순수하게 공예 자체를 바라보고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수련하듯 갈고닦은 기술과 시간, 작가 개인의 미적 감각과 철학, 재료에 얽힌 이야기 등 공예는 역사와 자연과 문화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장르니까요.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 CONTRIBUTORS

8년 전 [문화+서울] 100호 작업은 회사에서 주어진 그냥 수많은 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냥'이 '애증'이 되어 돌아왔다. 내게 200호가 어느 호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손민지 디자이너(이끼 아트디렉터)

### CONTRIBUTORS

잡지를 만든 지 꼬박 10년이 되었습니다. 기자 이름을 달고 처음 만든 잡지는 월간 객석 30주년 기념호였습니다. 입사 동기 셋이 먼저 수북한 서가를 뒤져가며 360권 사이를 헤맨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절 제게 편집장 그 자체였던 박용완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2018년 신년호, 국립극장 미르는 특별 기획을 냈습니다. 마음 맞는 디자인 회사와 꼬박 일 년을 함께하며 자신감이 붙었고, 새로운 기획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고르고 배면을 짜고 지면을 상상하며 글 쓰는 법을 익히게 해준 것은, 마감하다 새벽녘에 전화해도 꼬박꼬박 받아준 선배와 상상력을 종이 위에 구현해준 디자이너 덕분입니다. 현인 선배, 그리고 우리 실장님 많이 고맙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환경이 바뀌어도 좋은 사람들과 멋진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200호를 진행하며 자주 떠올린 것은 100호 대지를 교정 보던 이정연 차장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태희 디자이너(이끼 에디터)



### CONTRIBUTORS

두 달여 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문화+서울 200호가 완성됐다. 만드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지난 199권의 책 속에 담겨 있던 소중한 기록들, 무엇보다 2005년 이래로 18년을 멈춤 없이 계속 발행해 왔다는 사실은 200호가 가진 의미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오늘의 문화+서울을 있게 해준 그간의 담당자, 제작자,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 CONTRIBUTORS

몇 개월간 골몰했던 200호를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되니 후련하고 뿌듯하다. [문화+서울]에 오랜 시간 깊은 애정을 가져주셨던 파트너들과 함께 200호를 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세월이 흐른 뒤,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책으로 남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미래의 300호 담당자에게 때 이른 응원을 보내며, 2023년 9월 21일 저녁 씬.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CONTRIBUTORS

200호를 준비하며 나와 [문화+서울]의 역사도 돌아봤다. '몇 호가 처음이었지'하고 찾아보니 무려 '109호'였다. 2016년 3월호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진실 혹은 대담'을 쉬었던 2020년 4월호만 제외하고 이번 200호까지 91개 호에 기획, 글, 정리, 사진, 편집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왔다. 앞으로 몇 개 호를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문화+서울]이 300호까지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는 한없이 까다롭고 더없이 진심인 사람들과 만든 200호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전민정 편집위원



###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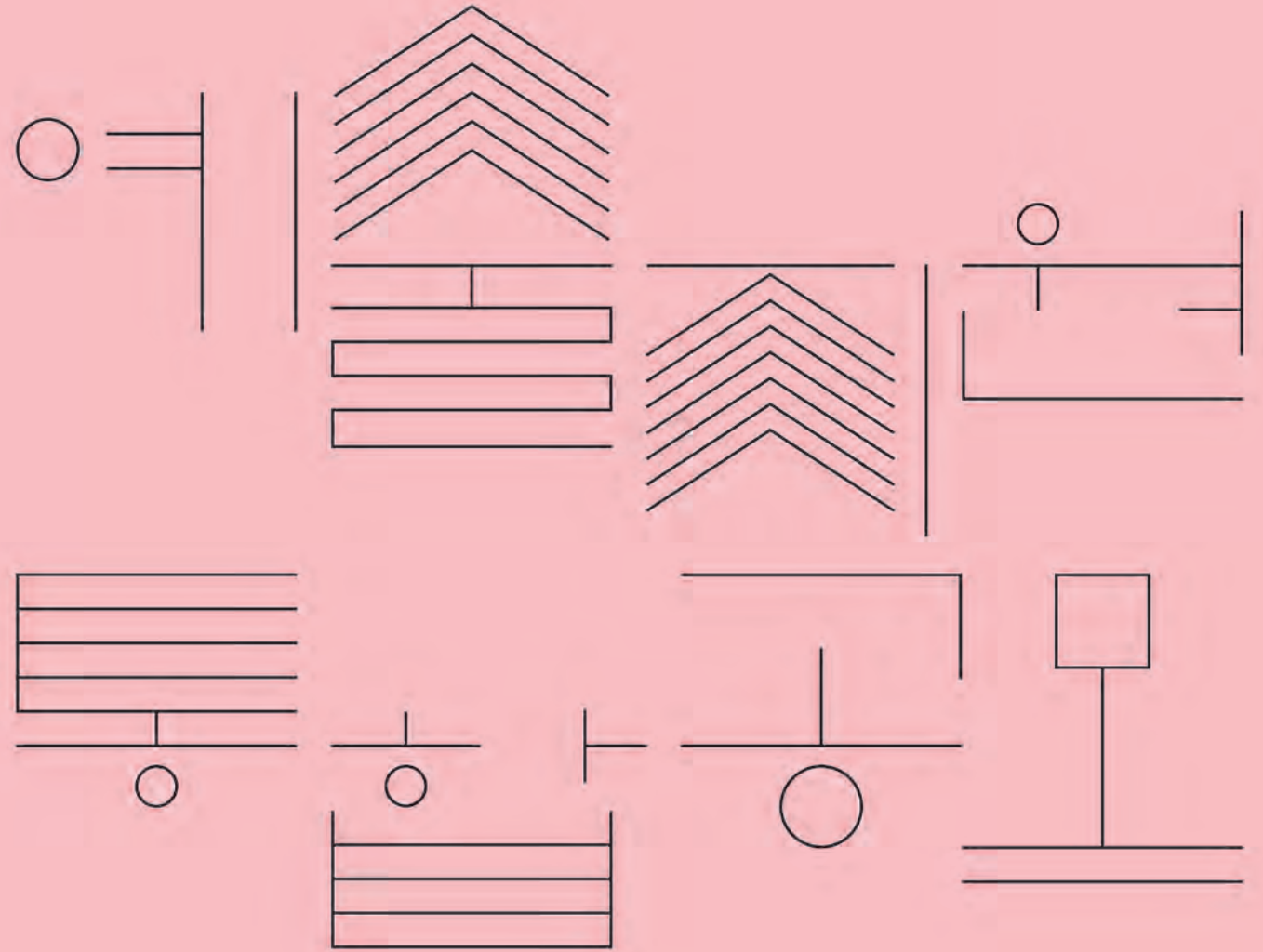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께는 [문화+서울]을 일 년간 보내드립니다.

# 2024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 1차



###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 사업설명회

2023.10.12.(목) 오후 4시  
정동1928 아트센터  
유튜브(스팍TV) 동시 송출

#### 접수기간

2023.10.4.(수) - 10.27.(금)  
오후 6시(KST, 한국표준시)  
원로예술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창작공간 입주공모는 기간 별도 확인

#### 신청방법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  
www.scas.kr/scas